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효과 분석

2011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李 善 子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of Vocational Adjustmen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201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李 善 子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of Vocational Adjustmen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위 論文을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李 善 子

李善子の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1年 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화훼장식을 활용한 원예치료	8
1. 원예치료의 개념과 의의	8
2. 원예치료의 현실적 적용과 효과	12
3. 원예치료의 선행연구	16
4. 화훼디자인을 활용한 원예치료	18
제 2 절 정신지체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25
1. 정신지체장애인의 정의	25
2.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	31
3.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35
제 3 절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과 화훼장식 프로그램 적용	37
1. 정신지체인의 직업 적응	37
2. 직업적응을 위한 치료적 작용기전	41
3. 직업적응을 위한 적응 훈련 및 접근 방법과 내용	43
4.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46

제 3 장 연구방법	49
제 1 절 연구대상	49
1. 연구대상 개관	49
2. 참여대상 인원	49
3. 유무형의 자원 확보	49
제 2 절 연구설계 및 방법	51
1. 원예치료 프로그램 계획	53
제 3 절 연구도구	59
1. 자아존중감(self-esteem) 검사도구	59
2. 작업수행 평가도구(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59
제 4 절 자료처리 및 분석	61
제 5 절 연구의 제한점	62
제 4 장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에 있어서의 화훼장식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63
제 1 절 직무수행능력 향상 측면	63
제 2 절 수익창출 측면	66
제 3 절 일상생활 측면	70
제 4 절 심리 및 정서적 측면	72
제 5 절 종합고찰	75
제 5 장 결 론	78

【참고문헌】	80
【부 록】	87
ABSTRACT	99



【 표 목 차 】

<표 1.>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 프로그램 (전반부)	56
<표 2.>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 프로그램 (후반부)	57
<표 3.> 작업수행 평가지의 구성	60
<표 4.> 집단간 동질성 검사	63
<표 5.> 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수행 전후차이분석	64
<표 6.> 2009년 하반기 수익금 현황 (단위:원)	67
<표 7.> 2010년 상반기 수익금 현황 (단위:원)	67
<표 8.> 수익금 현황 그래프	68
<표 9.> 프로그램에 따른 사회성 전후차이분석	70
<표 10.> 프로그램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후차이분석	72



HANSUNG
UNIVERSITY

【 그림 목 차 】

<그림 1.> 직업적응훈련의 효과모델	45
<그림 2.> 원예치료 직업적응 훈련의 세 요소와 역동적 모델	5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헌법 제 32조에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갖고 또한 근로의 의무를 가진 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법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G20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장애인 노동시장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형편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2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는 2000년에 비해 48%가 증가한 것이다. 이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내지는 취업유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율 최저치에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유완식, 2006).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생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최상의 방법이 장애인 직업재활이라고 판단된다. 197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업재활은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직업소개 등의 직업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계속적 종합적 복권(rehabilitation) 과정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취업과 그 유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계획된 원조과정이며 최종 목적은 취업'이라고 되어 있다. 1971년 UN에서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발표하여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직업훈련을 거쳐 직업을 가짐으로서 경제적인 안정과 정상적인 삶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조숙자, 2001).

하지만 이런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적, 인지적 제약이 주된 이유임은 물론이다. 특히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부적응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는 일에 실패하거나 불안정한 고용과 이직으

로 연결되어 개인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일반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세심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2005년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인권상담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담내용의 51.4% 중 정신지체인 비율이 20.7%로 가장 높았으며, 입사시험에서의 차별,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체불, 보호를 빙자한 노예노동과 수급권 착취 및 착복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 정신지체 장애인들 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인의 비중은 74.9%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7%로 거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 장애인들은 모두 비전문직,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업 장애인들의 희망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최영광). 설령 취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37%로 높았고, 특히 이중 초기 6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이직 자 수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엄승연, 1995; 이 양훈, 2002). 또한 지원고용을 통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고용유지기간은 6개월 이하가 36%를 넘어서며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9%, 24개월이 12%, 36개월이 11%, 36개월 이상에서 48개월이 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2/3가량이 6개월 이하의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옥숙, 2004).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취업률 및 직업유지 기간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직업재활훈련 기관에서 조립 등 단순 작업을 훈련의 직무로 이용하여 기능 재활, 기술의 향상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술을 배우기가 힘들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 다. 또한, 단순 작업 중심의 재활훈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훈련생들이 적은 움직임과 기계음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직업 재활 훈련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환경에 의한 2차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 행동들의 발생을 야기하여 취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직무기술이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직장 내 적응에 필요한 대인관계 개선이나 기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호 작업장 제도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보호 감독 하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

에 보수가 있는 고용의 기회를 주는 자율적 비영리 기관이다. 기관의 근본목적은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친 후 일반고용 형태인 경쟁고용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보호 작업장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훈련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낙후된 사회적 인식과,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독의 문제점, 그리고 작업장을 최대한 활용해 낼 수 있는 전문적 지도교사들이 절대 부족한 형편에 놓여있다(조숙자, 2001).

이러한 법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지원 부족 가운데서 원예치료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회제도 안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예치료란 식물 및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활과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훈련받은 원예치료사가 식물을 매개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심신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장애인들은 이 치료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들도 사회제도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심리적 회복을 이루어냄과 아울러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도 이 원예치료를 사전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인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자기인식 및 자기주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대인 불안 및 또래 관계 증진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인적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많은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송진희, 2004).

여러 원예치료 활동 중에서 화훼 디자인작업은 꽃을 포함한 줄기, 잎, 열매 등의 식물소재와 기타 보조 재료들을 잘 조화시켜 아름다움을 재창조하는 꽃 예술작업이라 할 수 있고, 원예치료 중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다양하고 정교한 손작업을 통해서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증상 호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훼 디자인은 다른 활동에 비해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식물의 형태 및 크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며,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며, 상업적인 활용도 역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꽃꽂이를 이용한 원예치료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작업수행능력과 생활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충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주의력과 책임수용이 증가하여 취업 후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정은, 2003).

이러한 화훼 디자인의 효과에 근거하여 직업재활과 직업적응 훈련과정에 원예치료 및 원예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연구에서 이 치료과정에 참여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자발적인 신체움직임의 기회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근육과 소근육, 신체균형감각 유지 등의 효과를 얻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감정 억제,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불안 감소와 자아 존중 감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원예치료 과정은 참여자 모두에게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장(場)이었으며,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함으로써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접근방식을 원예 치료에 적용하여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미치게 될 직업적응력 효과를 분석 하고자한다. 즉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적응 훈련의 한 방법으로 원예치료 활동별 분류 서정근과 이상미(2004) 꾸미기 영역의 꽃꽂이 활동을 활용하여 직업적응훈련적용을 제시 이를 활용 실시 효과성 분석을 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훼장식기능훈련 (이선자, 2007).를 이용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집중적인 관찰대상이 될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은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 경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작업환경에 적응하여 기술과 생산성을 개발하고,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되는 재활시설이다 (Goldenson, 1978). 이러한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첫째, 작업 및 기업 활동 둘째, 훈련 및 재활 활동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이 두 목적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조화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Nelson, 1971). 이런 작업장의 고유기능은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장으로서의 기능과 그 연장선상에 얻어질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의 직업 적응 및 일상생활 그리고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직업선호도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작품을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어지는 꽃다발, 꽃바구니, 사 방화, 부케 만들기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화훼장식 프로그램 및 장애인 직업적응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통해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후, 이론적 화훼 장식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실험 군, 대조 군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29일까지 매주 한번, 두 시간씩 장애인 화훼장식을 이용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32회 차에 걸쳐 그 효과와 현상을 기록한 뒤에 원예치료의 직업적응 효과 분석을 위해 직무수행, 수익창출, 일상생활, 심리 정서개발 4가지 영역에서 관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들 각 항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업능력평가서, 작업량 체크, CIS-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반기 임금평가결과를 반영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아존중 감 검사 도구와 작업수행 평가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자아존중 감 검사 도구는 Coopersmith(1967)와 Craighead(1988)의 연구를 참조한 전 귀연 등(1993)의 재 연구를 통해 번안, 수정된 것으로써 아동의 자아 존중 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지인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수행 평가도구(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는 Williams(2000)가 장애인의 직업평가를 위해 개발한 작업수행 평가지를 이용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질성 여부 파악을 위해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할 것이며, 각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과정의 수행을 통해 드러난 재활작업장의 수익금 수치를 통해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와 방안의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익금의 경우 성과급으로 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전달 수익금에 비해 이달의 수익금이 상승하였다면 작업수행능력이 증가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장애우를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의 면접 및 관찰결과를 함께 서술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들 사회복지사들의 면접 및 관찰 결과는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특성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결과이지만 양적 분석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가설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가설: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 자아 존중감,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와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계는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직업적응에 변화를 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하여 사전 사후 검사설계를 실시한다.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 검사를 통해 각 집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 동일한 작업환경과 화훼장식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을 통제하여, 프로그램 외의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이들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은 동질성 검사를 통해 그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직업적응 화훼장식은 화훼장식기능훈련모델이며, 그에 따른 종속 변인은 직무수행능력, 사회성, 자아존중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자(2007)의 기존연구에서 화훼장식기능훈련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작업수행능력 향상 및

직업재활 가능성을 입증한 근거를 토대로 화훼장식기능훈련모델을 이용하여 총32회를 전, 후반기로 진행 전반기는 이선자(2007)의 적용모델 꽃다발, 꽃바구니, 사 방화, 부케를 진행, 후반기는 전반기에 작업 기술을 더 첨부하여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점진적 지속적인 훈련을 일반화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을 검증하는데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화훼장식을 활용한 원예치료

1. 원예치료의 개념과 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80%이상이 식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식물이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다는 뜻이며, 식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인류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실제로 우리가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특별한 귀속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원예치료는 이러한 녹색회귀 본능에 기본을 두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다. 이 치료과정이 특별한 이유는 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아 수술이나 약을 통해 치료하는 의학과 달리 ‘아픈 이유’를 찾아 근본원인을 함께 치료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원예활동을 통해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를 얻고 원예활동을 통해 못쓰던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예치료는 살아있는 식물을 매개로 한 환경 친화적 저비용의 자연치유법인 셈이다.

원예치료라는 단순한 두 단어의 정의만 살펴본다면, ‘원예’란 식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전체 작업과 과정으로 정의된다(Matsuo와 Miyajima, 2002). ‘치료’는 영어로 ‘therapy’인데 이는 즉 화학적 약물이나 신체에 의료 기구를 대는 수술이 필요 없이 행하여지는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대민 외, 2006). 이런 정의에 의한다면 고대 이집트에서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정원을 산책하게 한 것은 이미 원예치료의 의도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정신병학이 과학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현대에 이르러서 서구 의학계를 중심으로 식물을 이용한 원예치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원예치료란 식물을 치료요법으로 이용하면서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정의내리기에 여러 범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하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한다. 하지만 근대사회에서 일상생활, 직업,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치료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원예치료는 미국원예치료협회에 의해 1991년에 최초로 통합된 정의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 심리 및 신체적 적응력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영적 치유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가장 최근인 2006년의 보고에 의하면 ‘특이적 치료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훈련받은 치료사에 의해 촉진되는 정원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도 정의되기도 한다. 현재는 ‘획득하는 특징’의 1차적 의미의 원예에서 현재는 2차적 의미의 원예가 각광받고 있다. 2차적 의미의 원예란 1차적 의미의 원예와 더불어 ‘양육하며 느끼는 특징’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식물을 접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원예의 중요한 부분인 ‘사랑하며 기르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먹 거리, 관상 적 가치, 조경 적 가치에 국한되었던 원예 활동에서 벗어나 식물이 인간의 생리적, 감정적, 육체적인 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윤성류, 2009). 즉, 원예치료는 식물 또는 식물에서 비롯한 여러 활동을 치료의 매체로 하고, 종자를 파종하여 이식, 재배하는 일련의 과정과 번식시키고 수확하여 꽃과 열매를 이용하여 장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치료에 이용한다(정은숙, 2009).

원예치료의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그 발달단계를 초창기, 변혁기, 성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창기인 18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정신질환자나 정신박약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자급자족이나 환자의 일과를 목적으로 시작한 영농작업이 원예치료의 효시로 인정된다. 이후 변혁기인 2차 대전 후부터 1970년 사이에는 원예치료의 발전은 괄목할만하다. 이 시기에 원예치료가 상이군인의 심리나 정신치료도구로 도입되면서 인간과 원예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심리학자나 의사들 사이에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973년 원예를 통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국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1987년에 미국원예치료협회로 재편되었다. 이후 원예치료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 원예치료협회는 현재까지도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의 원예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예치료의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됨과 동시에 대학에서는 원예치료사 강좌가 개설되는 등, 1970년대 이후 원예치료는 급속한 원숙기에 접어들

었고, 원예치료와 관련된 법제정이라든지 원예치료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발족되었다(손기철, 1997).

유럽에서도 농경활동이 치료효과에 유효하다는 기록이 17세기말에 있었다. 1699년 영국에서는 Leonard Maeger라는 사람이 《영국의 정원사(English Gardener)》라는 농업관계 정기 간행물에 원예의 치료효과에 대해서 보고했고, 1806년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농경활동의 효과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 또한 1800년대 초기에 북스코틀랜드의 Gregory라는 의사는 자신의 농장에서 정신병환자들에게 일을 시켜 보았더니 정신병 치유에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1930년대에 영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과 치료에 관한 법을 만들어 정신병환자를 병원의 부속농장에서 작업시키도록 하였다. 1936년 영국에서 설립된 작업치료사 협회(Association of Occupation Therapist)가 정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위한 특수치료로 원예치료의 이용을 알려 치료도구로서 원예치료의 수용이 보다 중요한 수준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후로 1960년부터는 영국 옥스포드 에 있는 Nuffield 정형외과 센터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정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후로 노인 병 시설과 정신장애 아동의 시설에서 정원이나 실습농장에서 이용하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원예치료 및 농업훈련협회(Horticultural Therapy and Rural Training Association)가 탄생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원예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는 「Growth Point」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의 목적으로 원예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정신지체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에게 원예치료를 적용하여 이용대상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원예치료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관련기관에서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고, 1994년부터 간호사, 양호학교 선생 등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20회 정도 원예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 일본녹화센터 내에는 '원예치료 연구회'가 개설되어, 원예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손기철,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야 원예치료의 개념이 도입되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오래전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사찰에서도 정원을 가꾸고 화초를 실내에서 키

우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궁중에 꽃을 꽃거나 관리하는 관직(압화사, 권화사, 인화담원, 설화주사, 화주공관)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꽃에 관련된 관직이 있을 정도로 꽃 문화는 크게 발달되어 있었으며 궁중 연회 장식뿐만 아니라 왕비, 왕자의 책봉식과 같은 모든 궁중의식에는 꽃장식도 하나의 절차로 집행되었다. 고려시대 시기의 꽃은 화병이나 수반 등에 꽂는 것 이외에도 머리, 옷 등 다양한 장신구의 역할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발달로 분경, 분재를 다루는 서적이 나오고 <양화소록>이라는 원예에 관한 서적이 출판되기도 했다. <양화소록>의 부록인 <화암수록>에서는 나무나 꽃을 9가지 품으로 나누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단순히 꽃을 꽂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에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사용하는 소재에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사군자' 즉,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선비들이 그림으로써 심신을 가꾸었다. 매화는 지조 있는 선비의 기상을 난은 절개와 기품을, 국화는 고고함을, 대나무는 곧은 성품을 상징하였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화훼 장식의 형태가 발달하였고 꽃꽂이가 하나의 정신문화로 등장하게 되었다. <임원십육지>, <산림경제>에서는 꽃을 꺾는 방법, 꽃에 물을 주는 방법, 화기의 배치나 선택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부터 사대부, 일반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의 생활 속에 꽃과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이현정, 2006). 심지어는 고려시대 때처럼 궁중에 꽃을 담당하는 '화장'이라는 관직도 있었고, 재배법 기술을 지도하는 국가기관까지 설립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1980년대 초에 고려대학교 원예학과와 광명화가 사회원예학으로써 원예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1988년 장애인 올림픽 이후로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원예가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활용 보급되었다. 이 후 1992년 건국대학교 원예학과와 손기철 교수가 원예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에는 고려대학교 원예학과 심우경이 미국원예치료협회의 한국간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재활병원과, 정신과, 복지관, 교도소, 학교 등에서 원예치료를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여광용 외, 2001). 1997년에는 '한국원예치료연구회'가 결성되었고, 이 후에 '한국원예치료협회'가 결성되어서 원예치료를 보급하며 교육·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가지고 있다.

1991년 최초로 효성가톨릭대학교에서 원예치료 강의가 설강되었으며, 이어 1993년에는 고려대학교 원예학과의 대학원과정에 사회원예방법론에 대한 과목이 설강되었다. 1997년 한국 원예치료연구회의 발족으로 국내에서 학문적, 실용적 원예치료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학,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예치료에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예치료사의 자격은 복지원예사, 원예치료사 2급, 원예치료사 1급, 고등원예치료사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예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원예치료협회에서 인정하는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의 원예치료사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의 원예치료전공을 수료한 후, 일정 시간 원예치료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한다(한국원예치료 복지협회, 2010). 복지원예사와 원예치료사 2급은 60회 이상의 임상실습을, 원예치료사 1급은 200회 이상의 임상실습, 고등원예치료사는 1,200회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원예치료 슈퍼비전 제도에 따른 신규 조향으로, 원예치료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인정한 슈퍼바이저에 의하여 1단위(3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원예치료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인정한 슈퍼바이저에 의하여 2단위(6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슈퍼비전 제도는 2011년 하반기 자격 취득예정자부터 의무화 되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 원예치료 복지협회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게 되어 앞으로 원예치료사가 국가 자격증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이 열렸다.

2. 원예치료의 현실적 적용과 효과

원예치료의 현실적 적용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험에 의존된 것이지, 과학적인 학문으로서는 비교적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거환경 내 녹색식물의 존재는 혈압, 맥박, 심전도, 눈의 피로 등으로 측정된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경감에 매우 효과적이며, 정신 생리적으로 식물을 보는 것은 뇌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델타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단순히 실내식물을 거주지에 배치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원예활동은 단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식물을 볼 때 뇌파를 측정해보면 뇌의 전두엽과 좌측 측두엽 부위에서 델타파가 감소되고 후두엽 부위의 알파파가 증가되어 단순히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 2000). 더욱이 창밖으로 식물을 볼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한 수술 환자와 단순히 건물만을 볼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의 회복 과정을 비교해보아도 두통, 아픔, 간호사에 대한 불평, 회복기간 등 모든 면에서 식물을 본 환자의 상태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문제행동 수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치료로는 원예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원예치료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의료적인 치료는 물론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근래 주목이 되고 있다. 단지 원예치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또 연구 보급에 따라 새로운 논의로 개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공유되는 대강의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정의는 (1)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한다는 것, (2)대상자가 장애자라는 점, (3)직접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손기철, 2007). 이 경우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대상자의 설정에 따라 원예치료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목적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원예치료가 장애자의 치료, 회복,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좁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치료 혹은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정상적인 인간의 비정상적인 육체적, 정신적 불균형을 바로 잡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원예치료는 정신지체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환경미화나 채소, 과일, 꽃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한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상이군인들의 재활이나 직업훈련으로 원예치료가 도입되어 작업치료로서 이용되는 등 주로 정신장애자 및 신체장애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정신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원예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 정년퇴직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는 매우 유익한 건강증진법의 일환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원예치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조현구, 2006). 첫째, 생명을 매개체로 한다. 즉, 원예치료는 대상으로 하여

금 식물의 생장, 개화, 결실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매개체로 하는 치료법이다. 둘째, 생명을 돌보는 치료방법이다. 장애인은 오랫동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환경에서 성장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호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원예치료는 대상자가 직접 식물을 돌보고 키워 수확물을 얻으면서 자신도 다른 생명체를 돌볼 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셋째, 상호 역동적이다. 원예치료는 대상자와 식물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치료대상자는 치료사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 작업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상자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난 뒤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다면 식물은 말라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보면서 애착을 느끼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넷째, 창조적 파괴로 인한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원예치료를 통해 식물을 키워 수확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만든 장식품으로 주위 환경을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을 자르고, 꽃과 잎을 따서 눌러 말리며, 열매를 따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원예치료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들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원예활동을 하면서 식물의 생명주기와 인간 자신의 생명주기를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및 자기 성을 확립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미이다(Relf, 1981). 둘째, 환경의 변화를 모색한다. 스스로 주변 환경을 꾸미는데 무력하거나,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병적 대상자의 경우 원예활동을 통한 흥미로 인하여 환경의 변화를 꾀하려 노력하게 된다. 셋째, 책임감을 증대시킨다. 식물을 돌보면서 생기는 책임감과 식물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강한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식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써 이를 다루는 인간과의 사이에 매우 특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식물을 돌보는 사람에게 강한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창조성을 증가시킨다. 식물은 인간과 더불어 무궁무진한 성장과정을 도래하는 것으로써 삼목, 씨뿌리기, 꽃꽂이

등은 완전히 새로운 식물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채롭고 경이로운 자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좌절에 대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여섯째,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원예활동은 일상적인 근심과 하루 일과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휴식 과정으로서의 원예는 활동의 특성상 완전한 몰입과 집중을 지속시키는데 이러한 특성에 관하여 Kaplan(1973)박사는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라고 보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를 발달시킨다. 원예치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활동장소에 따라 신체운동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여 소근육 운동과 대 근육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언희, 1999).

원예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기술요구가 적은 치료법이다. 대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을 북돋우고, 기억을 향상시키며, 감각 자극과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며,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리고 양육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원예치료는 음식이나 기타 식물에 관련된 상품이 어떻게 길러지고 판매되는지를 가르침으로서 원예 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리하거나 무력한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원예치료가 다른 어떤 치료와도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하나의 생명체를 돌보고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잘 돌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데, 이러한 피드백은 올바른 행동을 촉진하고 자기가치관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식물은 실패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 식물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체로서 식물의 반응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실인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그리고 생명의 놀라운 미스터리는 원예를 치료의 매개체로 사용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생명체인 식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운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보답을 받을 것이다(김형득, 2009).

원예치료 대상자는 정상인(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과 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그리고 환자로 분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하다. 원예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한 과정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원예치료의 적용 과정은 (1)진단 및 준비단계(diagnosis and preparing phase) (2)계획단계(planning and preparing

phare) (3)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 (4)평가단계(evaluation phas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진단 및 준비단계는 진행시키고자 하는 원예치료의 대상과 그 대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편성 및 진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실행단계는 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원예치료 평가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평가단계는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목표가 얼마나 기대치에 접근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원예치료 과정의 구분은 첫째, 보다 체계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둘째, 실행 혹은 평가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적절한 단계로 되돌아가서 수정 및 보완을 쉽게 행할 수 있게 하며, 셋째, 대상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제시와 함께 단계별 치료자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해 준다.

3. 원예치료 선행연구

원예치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어느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16회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이 감소되었고, 내재화 문제(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와 문제 행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면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지적발달 및 행동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최영애, 1999).

또한 유치원 아동의 정서 및 학습에 미치는 원예치료 효과를 집중 연구한 한 대학에서의 연구보고서도,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아 학습에 문제가 있는 유치원 아동들에게 3개월 동안 24회의 원예체험학습을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변화와 학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원예체험 학습이 취학 전 유치원 아동들의 정서안정, 집중력 향상, 자신감 고취 등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사회성을 회복시켜 학습장애 및 행동장애를 치료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박

명숙, 2001). 그리고 같은 해, 김한석 은 자신이 진행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부적응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의 자기평가에 의한 검사 결과, 아동들의 과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이 많이 감소되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김한석, 2001).

이 외에도 대상자를 달리 하여 원예치료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연구 지원과 에서는 원예치료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자아성숙과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결손가정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원예활동 평가표와 자아 존중 감 검사지 를 사용한 결과 참여성, 관심 및 조력 성, 언어소통능력, 자아개념 및 주체성, 욕구, 충동적 적응력, 대인관계능력, 숙련도 항목에서 수치가 증가했다. 이들의 총체적 자아존중감도 통계적으로 높아졌고, 사회적 존중감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김경호, 2008). 대구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 1회 씩, 총 12회 원예치료를 실시한 연구 결과보고서에서 도 자 가 평가 우울척도의 평가결과가 원예치료 실시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활동의욕, 성취감, 사교성,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홍열, 2007).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한 손만을 사용할 수 있는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예프로그램을 실시한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정신지체자의 신체적 능력, 창의성 그리고 독립적 생활 능력과 사회성발달 등 모든 부분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보고되었다(Shomaker and Mattson, 1981; 금은정 2002). 또한,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7~27세의 중급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해서도, 대상자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신지체 분야에서의 국내연구는 홀트 학교의 정신지체아 학생들의 직업기능과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원예는 직업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적능력, 인성, 적응행동, 학습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밝혀졌다.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에서의 작업치료의 수단으로 원예치료를 적용한 연구결과(남오철, 1998),

그리고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에 있어서 원예치료의 효과를 집중 연구한 보고서도 있다(노기보, 2000). 대상자의 폭을 넓혀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20~65세 여성 정신지체인 13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원예치료를 함으로써 원예치료활동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인상적인 연구도 있다(유진희, 2005).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원예치료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 배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행동향상과 인식 능력, 작업적 관심 등의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원예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병원, 복지관, 재활원, 양로원 등의 기관에서 농장부지선정, 시설물 건축, 농업기기 확보 등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윤 성류, 2009).

4. 화훼디자인을 활용한 원예치료

우리가 살고 있는 실내의 생활공간에서 꽃과 식물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지속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용되면서 인간생활에 유익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꽃은 이용 목적에 따라 생활공간용, 축하용, 행사용, 디스플레이용, 그리고 작품전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활공간용 꽃도 이용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일반 가정을 비롯하여 사무실, 판매장, 커피숍, 식당, 호텔, 백화점, 교회, 절, 전시장, 공연장 등의 실내공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분 식물 과 꽃꽂이를 비롯한 절화장식물이 이용되고 실내정원이 조성되며, 실외 공간에는 크고 작은 분 식물로 이루어지는 분 정원과 초화 류 로 이루어지는 정원이 조성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실내 공간 뿐 만 아니라 창가, 발코니, 옥상, 현관 앞의 공간에 초화 류 를 이용한 크고 작은 분식물이 배치되고, 아름다운 작은 정원이 일반 주택과 함께 도시 공간 구석구석에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화훼디자인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전문 직종으로 이 분야에서의 활동은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플라워디자인교육원, 2004).

4-1 화훼디자인의 개념적 정의

화훼디자인이란 꽃과 식물을 중심소재로 이용하여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목적을 달성해 가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감각과 정신이 함께 작용하는 생명적인 체험으로써 내면적 과정을 기초로 하여 외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화훼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자연과 조형 위에 성립되는 시·공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윤숙영, 2002).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다 보편적 의미의 꽃꽂이란 꽃과 꽃이의 합성어로서 꽃과 줄기를 가급적 자연적질서의 파괴를 삼가 하면서 흔들림 없이 고정시켜 물에 꽂아주는 과정이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관상적 개념의 작업과정이다. 다시 말해 꽃꽂이란,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물을 소재로 작가 의도에 의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재료를 조합, 배치함’을 의미한다(윤성은, 2006). 이에 비하여 화훼디자인은 예술의 한 형태로서 만드는 이나 감상하는 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꽃을 만지거나 보면 영감과 희망을 얻게 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훼디자인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은 살아있는 녹색의 자연을 통해 얻은 일차적 경험으로서 기계로부터 얻지 못하는 생명과의 직접적 체험으로 자아의 완전한 성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는 좁게는 장애인의 재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범법자의 정신감화, 어린이의 정서 교육 등에 넓은 의미로는 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화훼디자인을 통해 정서함양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꽃이나 식물은 눈으로 보거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심리를 편안하게해주고, 꽃이나 식물을 이용한 활동은 성취,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2 화훼디자인의 일반적 효과

화훼디자인의 일반적인 교육효과로서는 식물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식물에 대한 관찰력,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식물의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한 미적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식물관리를 통해 문제해결, 관리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화훼디자인의 치료효과와 밀접한 환경조절효과로서는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실내에 배치된 식물은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배출해서 주변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통해 주변의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물질들을 흡수하고 산소와 물을 배출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식물은 광합성 및 증산작용을 통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이현정, 2006).

화훼디자인의 장식공간은 절화장식, 실내 정원 같은 실내공간과 정원의 토양에 직접 식물을 심는 실외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식물은 뛰어난 실내와 실외장식을 위한 재료이고, 다른 장식품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성장, 개화, 결실을 하는 생명체라는 점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큰 특징이 있다(윤성류, 2009). 또한 디자인 구성상 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뇌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뇌신경과학에서의 한 연구에서 동양식 디자인은 비언어적 인식, 통합적 기능, 문양의 인식, 예술적 기능 및 감정 기능과 연관이 많은 우반구의 활성화와 연관이 많으며, 서양식 디자인은 언어, 수학, 추상능력, 논리적 인식 등 비감정적인 기능과 연관이 많은 좌반구의 활성화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남명희, 2006).

4-3 대체치료로서의 화훼디자인

화훼 디자인이 전문화된 화훼장식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경우, 정신지체에 대한 예방치료 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에 대한 대체치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치료는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의 대중요법과 달리 전인적 치유를 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물질적, 정신적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적, 정신적 치유와 신체적 치유가 동시에 가능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손관화, 2005).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개인과 그 개인이 접하는 환경이라고 할 때 화훼디자인을 통한 자연환경 및 자연소재를 접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치료효과를 조성하는 것은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자아기능을 강화시키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꽃들이 지니고 있는 색색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자연을 선사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들 때

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내나 실외에 식물을 심고 가꾸거나 때로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 주택의 경우 주변에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은 사람들의 선호도도 가격도 높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캠퍼스가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대학들은 지원자수가 더 많다고 한다(곽병화 외, 1999).

4-4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원예치료로서의 화훼디자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화훼디자인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에 사용되는 행위를 바탕으로 디자인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대상자의 정서적인 측면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감성욕구의 증대(Emotional society)는 대량생산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특별한 개인 활동에 의해서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 화훼디자인의 트렌드는 크게 3가지 측면(Multi-interdisciplinary)에서 접근되고 있다.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 그리고 기술공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원예치료의 기능을 제고해주는 방법론은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다. 화훼디자인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화훼디자인 현상을 인간사회적 총체적인 연관으로서 파악하고자 함이다. 즉, 화훼디자인의 계획 및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회현상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이나 화훼디자인이 갖는 상징성 혹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공간의 계획까지 포함된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매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구매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도 고려하게 된다(윤성은, 2006)

이런 측면에서 화훼디자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개발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원예치료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이다.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특수학교 Fairhaven은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의 모든 단계에 따라 광범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학교의 선생님들과 직원들에게 원예

치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워크 샵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 샵에는 직업적인 교과과정의 발전을 위한 원예치료 개념, 방법, 기본적인 식물지식, 온실재배 등이 포함되었다. 그 후,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원예치료를 적용하였는데 활동을 위하여 온실이 만들어지고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원예 도구도 제작되었다. 원예치료 프로젝트는 학생들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시켰고 선생님의 실력을 높였다. 치료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과 집중력의 향상을 보였고 이후의 원예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원예활동은 운동능력, 사회적 기술,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shelterd workshop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집트에서 정신지체 학생들이 거의 고용되지 않고 정식교육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원예치료 활동을 통한 sheltered workshop의 참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원예치료 프로젝트는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사립학교에도 소개되어 교과과정에 원예활동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발달을 위한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4-5 정신지체인 재활사업으로서 화훼장식

우리나라에서의 꽃 소비는 주로 축하나 애도 등 특별한 날에 꽃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꽃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되었다. 일부 상류층의 고상한 취미로 공유되며 폐쇄적으로 이어져 왔던 꽃 문화가 점차 대중적으로 퍼졌고, 전반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도 일상적으로 꽃을 찾게 됐다. 사랑의 고백이나 친근한 감정, 자그마한 예의나 가벼운 이별의 슬픈 기분을 나타낼 때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물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말 대신 꽃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만큼 꽃말을 참조하여 꽃을 선택하고 선물하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축하용이나 행사용에 치우친 한국의 꽃 소비와는 다르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꽃 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는 양란처럼 가격이 비싼 꽃보다는 저렴하고 꽃이 아름다운 초화 류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초화 류를 이용한 실외 공간의 분 식물장식과 정원 조성에 대한 봄은 홈 센터(home center) 혹은 가든 센터(garden center)의 발전과 함께

정원열풍을 이루어내고 있다. 영국은 절화나 분 식물을 이용한 일상적인 실내공간의 장식은 물론,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특히 정원 가꾸기는 국민적인 스포츠로 인식될 정도로 대단한 관심거리이다.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마다 꽃으로 뒤덮인 독일은 꽃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정원의 나라 영국보다 훨씬 더 화려한 초화 류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레스토랑, 카페, 각종 매장의 창가, 옥상, 현관 앞의 분 식물로 이루어진 정원은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생활공간의 꽃을 보여주고 있다(한국플라워디자인교육원, 2004).

화훼산업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체작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인 현재 화훼산업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5,000억 불에 달하였으며 1인당 화훼소비액은 약 10,000원이다. 네덜란드는 1인당 꽃 소비액이 7배, 일본의 경우는 4배에 달하며 화훼소비액이 20조원을 넘는다. 꽃의 소비는 국민소득에 따라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훼디자인은 꽃꽂이, 플로랄 아트, 꽃 예술 등과 같은 대체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2004년 화훼장식기능사, 2005년 화훼장식기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화훼장식'이라는 용어가 보급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화훼관련 산업의 여러 통계 및 수치는 정인지체 장애인들의 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정인지체 장애인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화훼디자인 기술을 습득하게 할 경우, 그들의 재정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례로 이 선자,(후로 리스트 35,원예치료사 13여년) 정인지체장애학생에게 특수학교, 특수, 학급학생 등에서 정인지체 장애학생 및 정인지체성인들을 위하여 꽃꽂이라는 예술의 장르를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화훼장식 기능훈련이란 정의 및 개념(이선자,2007). 을 정리 발표 후 약2-3천여 명의 정인지체장애인 에게 직업 재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시 구로 가*문화센터에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실습장이 생기로 실제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지도 와 사회성향상,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상품제작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하윤* 꽃꽂이강사 (인천 동구 **동)은 장애인봉사를 위해 수년간 쪽방에서 꽃꽂이를 강의하고 있으며, 김정*(39세, 정인지체장애인)는 처음에는 복지관 차량으로 출, 퇴

근을 하였지만 꽃꽂이를 1년 정도 한 결과 환경이 바뀌어 지금은 일반 버스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타고 다닐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김명*(41세, 정신지체 장애인) 역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곧 자격증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의 강의를 맡은 하원장* “장애인들이 꽃을 만지면 잃어버렸던 정신 자아 세계를 찾아 간다면서 김정* 원생도 꽃꽂이를 1년 정도 한 결과 환경이 바뀌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금은 혼자 왕래를 할 수 있듯이 꽃은 원예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이런 재활의지와 자격증 취득은 이들의 재정적 자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남*신문, 2001).



제 2 절 정인지체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1. 정인지체장애인의 정의

일반인들은 정인지체의 진단기준을 지능지수(I. Q)로만 평가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실상 I. 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도 잘 할 것이고, 예의범절도 깎듯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 저능은 전통적으로 지능검사에서 나오는 점수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최초의 지능검사는 20세기의 전환점에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반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찾아낸다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Alfred Binet에 의해 개발되었다. 정인지체라는 기억의 효과적인 사용, 정보의 연합과 분류, 추리, 건전한 판단 등에 있어 또래아동들보다 현저히 느리다. IQ 점수는 정인지체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인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능지수(I. Q)가 낮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18세 이전에 발생되어도 정인지체라는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언어나 인지 자극을 주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이 힘들었던 경우, 또는 반응성 애착장애나 다른 심각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었던 경우에 태어날 때의 지능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환경적 즉 2차적인 원인이 전체 정인지체 장애인의 약 15-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과 같은 적응에 문제가 보이는 경우에도 정인지체로 진단을 내린다.(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

정인지체는 정신 이상처럼 질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인지체는 정신 이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이다. 적응행동은 지적인 기능에 비해 외부적인 자극과 교육 등으로 많은 발전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신 지체는 불치의 상태라는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생동안 고정 불변하는 상태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방향으로 정신 지체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하고 꾸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가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적응행동이 적절한 경우 학업 이외의 다른 생활에는 정상적일 수 있다. 일례로 《6시간 정신지체아동》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생활을 하는 6시간은 정신지체인 듯이 보이지만 학교수업 이외의 18시간 동안은 정상적이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신지체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상화'는 장애아가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지체아동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아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특수교육 혹은 훈련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일반인 간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백치(Idiot), 치우(Imbecile), 우둔(Moron)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1945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및 지적열약(mental subnorm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AAMR(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미국정신지체학회)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보면 정신지체란 지적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WHO, 1980). 1950년대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신지체의 정의는 무수히 논의가 되어왔고 주로 "정신박약"과 "정신결함"등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그 의미가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명칭 자체가 낙인이 찍혀있어 이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 일부학자들은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신지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한 학자들의 견해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일본에서는 1999년 4월 이전에는 정신박약, 1999년 4월부터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Mental Retardation'을 그대로 번역한 정신지체는 실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리하여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Mental Retardation' 대신 'Intellectual Disability' 즉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

꾸고 있다. 일단 정신지체라는 말과 지적장애라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신지체라는 말은 정신병원, 정신이상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다. 반대로 지적 장애라는 말은 훨씬 완곡한 표현이다. 지능 발달이 저해되고, 말 그대로 지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사람들의 이해와 작은 도움만 있다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있다면 남과 똑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신지체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미국 정신지체협회(AAMR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가 규정한 것으로써 “정신지체란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일반적 지적능력이 상당히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서 발달기간 동안에 야기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2002년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를 “정신지체란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기술에서 상당한 제한이 나타나는 장애이며, 이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라고 정의하였고(최영하, 2002), 일본에서는 정신지체를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하고, 이에 따라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강귀년, 2004).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즉, 의사표현,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교화,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진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 사회적 운동 역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커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T. J. 먼로라는 사람이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담하게 행동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모든 비합리적인 정신지체인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일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휴가가 주어져야 하며, 보호 작업장이 제공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정신지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게 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러야만 한다면 사람을 먼저 보는 자세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people with retardation)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

다. 이러한 먼로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운동에 영향을 받은 전문가들과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집단들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의견도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1991년에 정신지체장애인협회(ARC)에서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박약(retard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자기 권리주장 운동의 시작은 1968년 스웨덴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부모협회 회장이었던 벤그트 니르제가 정신지체 성인집단 성원과의 대화를 시도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정신지체남녀의 한 집단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 역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역할을 일정한 수준 아래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낀 그는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당시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단독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니르제는 장애를 가진 남녀 한 집단을 선정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우와 훈련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는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이론을 토대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고 장애시설의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일반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주류화(mainstream)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역시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을 2007년 4월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세부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마련해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법령 안에서 특이한 점은 ‘정신지체장애’라는 용어가 ‘지적장애’라는 법적 명칭으로 대체되어 표기되었다는 점이다(윤성류, 2009). 이 개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으로의 용어 변경 외에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

다. 무엇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고 시설유형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재편하는 한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별도로 분리되도록 개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장애인 복지 법 제2조(1999.2.8. 개정. 2000.1부터 시행)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 2000.6)”라고 말하면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적응행동에 현저히 곤란한 자(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00)”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인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분류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정신적 장애유형 내에서 중복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문미영, 2009).

장애인 복지 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34세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독립이 어려우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정신지체 1급, 35 이상 49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의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수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정신지체 2급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50 이상 70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을 정신지체 3급으로 나누고 있다(김재현, 2001).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간정도의 정신지체의 경우 ‘훈련 가능 범주’라고 하여 직업 교육을 받아 단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I.Q 100 기준에 맞추어 놓은 일반 초등학교 과정을 I.Q 70도 안 되는 아이들이 다른 일반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성인들이 전혀 공부해본 적이 없는 전공과목을 하루에도 몇 시간동안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고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성 개발이나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받는 교육을 인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능검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반복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생활지도 훈련 등 개별화 교육을 적용시켜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한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정신지체아는 지적발달이 지체되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반아동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되어 오다가 선진국에서는 완전통합교육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정신지체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왔고 좋은 연구들이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통합교육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지체인 복지법이 제정된 나라가 많다. 스웨덴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정신지체자의 부모회가 결의권을 가진 정회원으로서의 참가하고 전국 집행위원으로서 선출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정신지체자의 장애에 대한 자기인식 및 자기 결정의 역량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의 정상화이념과 운동의 발전 속에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재 파악이 진전되었다. 정신지체장애인인 자신은 복지적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서비스"이며, "자기결정자"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운동"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동향으로서는, 정신지체자의 주체형성의 문제가 중시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지체'라고 하는 장애성에 대한 재검토의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수용하여 지도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18세 이상자에게도 정신지체인 원호시설에 수용시키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첫째로 지도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서 전문가의 지도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소, 전문가의 배치와 수용시설의 건립은 당장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2.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

정신지체장애인은 지체의 정도,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의 범위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복지총람, 1996).

2-1 행동의 특성

정신지체의 원인으로는 임신초기 3개월 이내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약물중독, 방사선노출, 혈액형의 부조화 등이 있었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출생 시 체중이 몹시 작아 보육기에서 키워야 했던 미숙아에게서 정신지체의 발생률이 높다. 난산으로 인해 아기에게 산소공급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교통사고, 추락, 두부손상 등으로 뇌에 손상을 주었을 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지냈을 때에도 지능지수가 낮아짐을 보게 된다. 정신지체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쉽게 발견되지만, 경미한 때에는 진단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학교에 입학하여 학습이 뒤떨어지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야 뒤늦게 발견하는 수도 있으며, 또한 뇌성마비와 같은 사지에 마비가 있거나, 시각, 언어 및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가 동반된 경우 이를 다른 장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정신지체의 발견이 늦어지게 되기도 한다.

정신지체아는 일반적으로 말을 늦게 하며, 목을 가누고, 앉고 걷는 등 모든 운동의 발달이나, 또는 대소변을 가리는 일이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며 주의 개념이 희박하고 신체동작이 민첩하지 못한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이밖에도 주의집중이 안되어 공부를 오래지속하지 못하고 단체놀이가 곤란하며 고집이 세고 솔직하다는 특성이 있다.

정신지체인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충동이나 긴장을 스스로 통제, 판단 능력이 열악하고 직·간접적 경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정상인과 다른 특성이 있다. 또한 인지과정 및 구조적 특성의 측면에서 개념 형성이 어렵고 공간지각이나 시각지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농우하며 주어진 상황이나 사태를 통찰·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열악하다. 성장과

장에서 장애로 인한 직·간접 경험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정상인과 상이한 행동을 자주 보이며,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이나 긴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들은 자아결핍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에 통제력이 없으며 무기력하고, 눈앞에서 손가락을 꼬거나 일부러 가구에 부딪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반복적인 단어사용 등 고착화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적능력의 지체정도나 증상의 유형, 연령, 기타 여러 요인 때문에 그 행동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극히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관계의 특성에서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이에 수반되는 언어능력·통찰능력·판단능력이 결핍되므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학습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 집중이 어려우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일반 학생들에 비해 저장과 재생을 위한 투입정보의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억을 위한 시연전략들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기억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작은 실패의 경험으로도 동기 유발이 저하되며, 위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며, 과제에 실패한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학습된 무기력감과 낮은 자아 개념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2-2 인지과정 및 구조적 특성

정신지체장애인은 개념 형성하기가 어렵고 공간지각이나 시각에 자주 혼란을 일으키며, 감각적으로 무디고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통찰하고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들은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한 경우가 많으며, 지적 구조가 극히 경성이고 융통성이 없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은 중추신경계의 복잡성의 결여로 두뇌감각 수용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장기기억 능력보다 단기기억 능력이 특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로 인하여 고도의 사고를 요하는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학습은 매우 어려우며, 학습 수행 과정에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강귀년, 2004).

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20, 또는 25 이하)는 정신지체인들 가운데

대략 1~2%를 차지한다. 이 수준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초기 소아기 동안 감각운동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도, 보호자와 개별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고도로 체계화된 환경 아래서는 적절한 정신 발달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심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지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수동적이고 처져있고 의존적인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대신,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의해 착취당하기 쉽고, 권리나 기회를 박탈당하기 쉽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3~4배정도 높은 정신장애 이환율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모든 유형의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신장애의 성질이 일반인들에 비해 이들에게서 차이 있게 나타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예를 들어서 흔히 정신지체가 없는 경우보다 정신지체가 있는 개인들에 있어서 특정 진단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히 동반되는 정신장애들은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기분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들이다. 다운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지체는 알츠하이머형의 치매로 발전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런 장애와 연관되는 뇌의 병리적 변화는 치매의 임상 증상이 나중까지 분명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 40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2-3 사회적 특성

정신 분석가들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적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1971년 Hagen & Huntsman은 그들의 자아개념이 지체수준과 정도에 따라 형성되고 사회적 미성숙을 열등의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생활시설에 격리, 보호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실패를 회피하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에 수반되는 언어능력, 통찰력, 판단력 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김재현, 2001; 권영희, 2006).

정신지체의 경과와 바탕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경과와 교육 및 기타 기회, 환경적 자극 및 적절한 관리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바탕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가 정적인 상태에 머문다면, 경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정신지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가 아니다. 어렸을 때 학교 공부의 실패로 드러나는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개인은 적절한 훈련과 기회를 통하여 다른 영역에서 좋은 적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정신지체의 진단에 요구되는 장애의 수준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사회복귀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도와야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근로의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된 자원과 노동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여 직업인과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4 증상에 따른 특성

증상에 따른 정신지체는 내 인성 정신지체와 외 인성 정신지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내 인성 정신지체는 행동과 사고가 유치하고, 뇌 전체의 발육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외인성은 지체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 많으며, 뇌의 부분적인 결함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정신지체 모두 장애자의 사고력이 단편적이고 지각의 혼란이 심하며, 행동이 병적이고 충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증후별로도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로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의 경우, 타 증후군에 비해 사회적 지능이 높아 명랑하고 협동적이며 조용한 성품이 있으나 말과 문법의 이해는 낮다. 정신적 성장률이 감소하며 이들의 평균 I. Q는 약 50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식선 미숙군은 비사교적이어서 대인관계가 극히 어려우며 좌절하는 경향이 짙다. 다운증후군의 아동들은 일부 연구에서 다운증후군의 아동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정적이 된다고 하지만 대체로 친절하고 사회적인 아동들 중 한 그룹이며, 낮은 수준의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둘째로 터너증후군(Toner syndrome)은 여자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2,000~5,000명 중 1명 꼴로 그 유병률은 매우 낮다. 터너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외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여성의 특징인 유방이 없거나 성인이 되어도 신장이 120-140cm에서 성장이 멈춘다.

셋째로 클라인펠터 증후군(Klinefelter syndrome)은 남아 1,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 외관적 특징으로는 남자의 외모를 따르지만 유방이 자라고 남성 성기를 갖게 된다고 한다. 대체로 불임 또는 소 고환으로 성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혼 후 자녀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프라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은 비만 경향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보통 아동들보다 많은 양을 섭취한 뒤에 포만감을 느끼며, 배고프다는 느낌은 더 빠르게 식사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많은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위에서 고찰한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직업적 특성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인 제한이나 의료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은 거의 항상 손상으로 야기되는 제한이나 문제를 경험하며, 뇌성마비와 간질, 발작, 언어장애, 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Fay & Schuler, 1980)등을 수반할 수 있다. 표현 언어나 수용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직업훈련이나 고용 후 업무지시 등 의사소통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 훈련이나 직무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수기법을 활용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둘째,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인 가능성과 제한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타당적인 것이고, 알려진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직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평가하며 검사 형식은 장애인의 평가 과정동안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직업

평가 시 작업표본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직업기회가 제공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실제 훈련에 앞서 개념적으로 세분화된 과제분석의 준거 내에서 학습해야 할 기능을 상호 관련되고 계열성 있는 요소로 제시한다. 또 각각의 교육과정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대상자가 설정한 수준에서 준거행동을 성취할 수 없다면 그 과정을 즉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또는 반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자립과 사회적 기능,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과 이동, 여가와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인을 취업시키려면 어떤 직장에서나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 후, 과제분석, 사회적 상호작용, 역할극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유용한 직업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직업 목적이 반드시 성공적인 고용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지체인의 행동 특성은 직무배치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성 행동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반복되는 업무에 배치된다면 그들의 의식적이고 고집스런 행동은 오히려 직업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



제 3 절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과 화훼장식 프로그램 적 용

모든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McGowan & Poter, 1967). 따라서 기회균등이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되어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참여를 준비하게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여야 한다(김소영, 2007).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순전히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의 직업이 갖는 의미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획득뿐만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 복귀라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윤 성류, 2009).

1.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적응

정신지체장애인이 사회에 영구적으로 통합 또는 재통합하도록 하는데 있어, 직업 적응은 기본적인 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지체장애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적응력의 증진만이 아니라 미숙련, 반숙련의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업에 대한 성공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거나 가장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사회에서는 몇몇한 생산적 시민으로 사회적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의 의의는 매우 크다(이양훈, 200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업적응훈련’이라는 개념은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이나 규범을 습득시키는 것을 적응훈련이라고 보는 반면에 그 의미를 더 좁혀서 직업영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능력과 작업태도 및 습관, 작업행동의 개발과 수정, 직업에 대한 가치와 욕구의 배양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직업기술 외

적 능력 배양과 관련된 훈련에 국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김성광, 2002).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적응 혹은 직업재활이란 적절한 고용에의 유지와 보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직업안내, 직업훈련, 적절한 배치 등의 직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의 과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지원 단체에서는 그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조성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 각각 개인에 맞는 기술 훈련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에 치료가 갖는 특별한 직업적응 훈련은 이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연을 통해 얻는 생명과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작업에 흥미를 더하고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장애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 성류, 2009).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취업을 앞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영역으로 동물사육이나 가사·청소, 원예 및 그 유관직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직업흥미 경향은 더욱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자는 자동차 정비 및 건물 손질·관리나 그 유관 직종에 관심이 높았고 여자는 동물 사육, 원예, 가사·청소 영역에 더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김은영, 1996). 이런 선행연구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재활교육 내지는 현실에 맞는 재활교육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직업적응은 흔히 직업적응과 개인의 사회적응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Goldstein and Ruthven, 1983). 직업적응의 목적은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일상생활의 기능들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개인의 독립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 근본적인 관심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이 기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일상생활의 양상들을 다루어야 하고 단지 이론적인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여광용 외, 2001). 이러한 실생활 세계에서의 자기치료,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능력, 그리고 직업 등이 궁극적인 직업적응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의력, 학습, 그리고 학습한 것을 통합하는 일 등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최근 정신장애인의 원예직업재활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병원시설 이용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용인 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의 원장에 의하면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1,80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00여 명은 직업재활을 해서 직업만 가질 수가 있다면 탈 병원 화, 즉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같은 예를 통해서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신장애인은 치료가 우선이고 직업재활은 치료 다음에 오는 것이 대체적인 논리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원예치료만 해도 거창한 치료의 개념이 아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꽃을 키우고 손질하면서 애정이 싹트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원예치료인 것이다. 원예직업재활은 이 원예치료를 바탕으로 화분의 분갈이를 하고, 꽃을 꽃고, 꽃 배달 서비스를 할 때, 직업과 연관이 되고 소득을 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이 향후에 나갈 하나의 직장을 미리 병원에서 예비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주는 work sample(워크 샘플, 작업표본)을 설치해서 아주 좋은 귀감의 사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꽃다발, 꽃바구니, 사 방화, 부케상품을 선정하여 실제 화훼 유통시장에서 활발히 소비되는 화훼소재의 품종을 가지고 화훼장식 기능 훈련을 통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직업재활 훈련 및 직업적응 훈련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이선자, 2007). 실제로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 택배와 꽃 배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현재 수행하고 있고, 지금도 3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그 곳에서 생업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원예직업재활은 대체치료의 한 영역인 원예치료라는 영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성공적인 하나의 모형으로, 정신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직업재활계의 분석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고용형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고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기회제공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이루어진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업준비부터 직업훈련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취업으로 연결한다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의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 극소수만이 기업체로 일반고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 작업시설에서 일하거나 가정에 방치되는 상태로 남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조숙자, 2001). 그 준비과정으로는 장애인 자신의 취업 준비 및 직업적응이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을 고용할 고용주의 사회 환원적인 마음의 준비이다. 즉,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장애상태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업적응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듣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과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한태림, 1992).

그러나 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장애 그 자체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차단되는 것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좌절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직장 부적응에 있어서 외형적·물리적 원인, 예를 들어 작업환경이나 처우 문제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의 성격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동료와 상사와의 불화 즉 인간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희, 엄승연, 1999). 2000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살펴보면 장애인이 이직이나 직업유지의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대인관계와 직업적응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직업적응 상의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로 직업유지 실패나 이직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직업적응이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지원도 요구되어진다.

장애인들의 취업 및 직업적응과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장애영역별 특성과 그들의

독특한 요구들을 전제로 직업인성 및 준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미성숙한 특성과 낮은 직업적 성숙도를 지니므로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내담자의 직업적·사회적 전체 환경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이달엽, 1999). 좋은 프로그램이란 서서히 변화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직업적응 후에 한 개인을 사회 및 자급자족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직업달성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들 중의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기준은 작업적응의 성과를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로서 선택되었다(Najenson 외, 1980). 이와 같이 직업 전 훈련은 직업준비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훈련으로 정의될 수 있고 반면 직업훈련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능들을 따로 떼어내어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훈련은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기술,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수준까지 근로자의 행동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 사회복귀시설 「세하의 집」에서 정신지체인 원예 치료사로 근무하는 정 규연(23, 청각2급) 씨가 “정신지체인 학생들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청각장애로 인해 수업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으나 오히려 큰 동작으로 보여줘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한 참된 의미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기본적으로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가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원활한 업무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업적응을 위한 치료적 작용 기전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이 어떻게 화훼디자인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그들의 직업재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는 결국 원예치료의 치료적 작용 기전에 달려있다.

원예는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자연치유 수단중의 하나이지만, 현대 의학적 치료분야에서는 아직도 개발 중인 기법이다. 현재 국내외의 여러 치료시설에서 원예치료가 실시됨에 따라 다양하고도 놀라운 임상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이론이나 근거 및 원리, 원예활동이 주는 긍정적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예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대표적 학설로 상호작용(interac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반응(response)으로 요약되는 치료적 작용 기전 이론이 있다(Relf, 1990) 기본적으로 3개의 틀 안에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이 이루어진다.

2-1 상호작용

위에서 이미 고찰된 바와 같이 원예활동은 정신지체장애인 외에도 정상인들의 정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예활동이란,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 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특징을 가지며, 비 위협적인(non-threatening)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예치료의 비언어적인 교류(non-verbal communication)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다(조문경, 2003).

원예치료는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개인치료에 비해 대상자-대상자, 혹은 대상자-비 대상자 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형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상호작용은 대상자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원예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원예치료는 이렇듯 개인보다는 집단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지며 부수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2 활동

식물과 함께 하는 여러 활동과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얻는 변화의 유익은 돌봄에 있다. 이 돌봄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치료적 유익을 가져다준다. 이 유익은 대상자가 식물과 더불어 활동함으로써 식물의 생활주기와 사람의 삶의 주기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효과로 드러난다.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이 이 사회에 유용하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들을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이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조문경, 2003). 원예치료는 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기전 기능의 한 방편으로써 대상자들로 하여금 주체적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무의식적으로 주의 집중을 지속시키는 유익이 있다.

2-3 반응

식물은 어떤 자극에 대해 직접적이면서도 명확한 반응을 표출한다. 이런 반응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심미적인 기쁨을 느끼게 해주며, 식물의 성장과 다양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뭇대로의 삶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Relf, 1981). 이런 원예활동을 통한 체험은 크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자가 호감을 갖는 자연 또는 원예활동을 통해 대상자는 식물과의 다양한 치료적 상호작용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혈압이나 맥박, 혹은 호흡의 변화, 면역력의 증가 등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원예 치료적 자극은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고,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져 정서적 경험의 질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행동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적응 내지는 직업재활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직업적, 사회적, 치료적 형태로 활용되어 상황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극대화된다.

3. 직업적응을 위한 적응 훈련 및 접근 방법과 내용

직업적응 훈련의 접근방법은 훈련기법에 따라 언어적, 상황적, 환경적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고(Dunn, 1974), 접근방식에 따라 생활중심 접근법(Brolin, 1982)과 학교중심 접근법(Clark, 1979)이 있다.

브롤린(Brolin, 1982)의 생활중심 접근법은 장애인의 직업 전 훈련과 가정, 가정성원, 지역사회의 역할 기능훈련을 말 하며 직업 전 훈련의 내용은 일상생활 기능, 직장 지역사회 가정의 행동기술, 직업에 대한 일반기술 훈련을 말 한다 또한 클라크(Clark, 1979)의 학교중심 접근법은 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사회적, 경제적 적응의 어

려움과, 그들의 잠재능력을 객관적 평가 및 직업탐색이 어려워, 졸업 후 직업세계에 적응 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직업 전 훈련을 학교 단위에서 실시함을 말하였다

위 두 학자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직업적응 훈련은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훈련과 사회성 개발을 위한 훈련,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일상생활 자립훈련

신변자립, 의사소통, 생활자립, 이동능력 등을 말하며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발달과 학습이 현저히 늦어 성인이 되도 신변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독립생활을 위해 신변처리 및 생활자립 기능의 습득, 집단생활에 참여하는 기능습득, 경제적 유 용력의 신장과 직업생활의 적응력을 신장시켜야한다(Brolin,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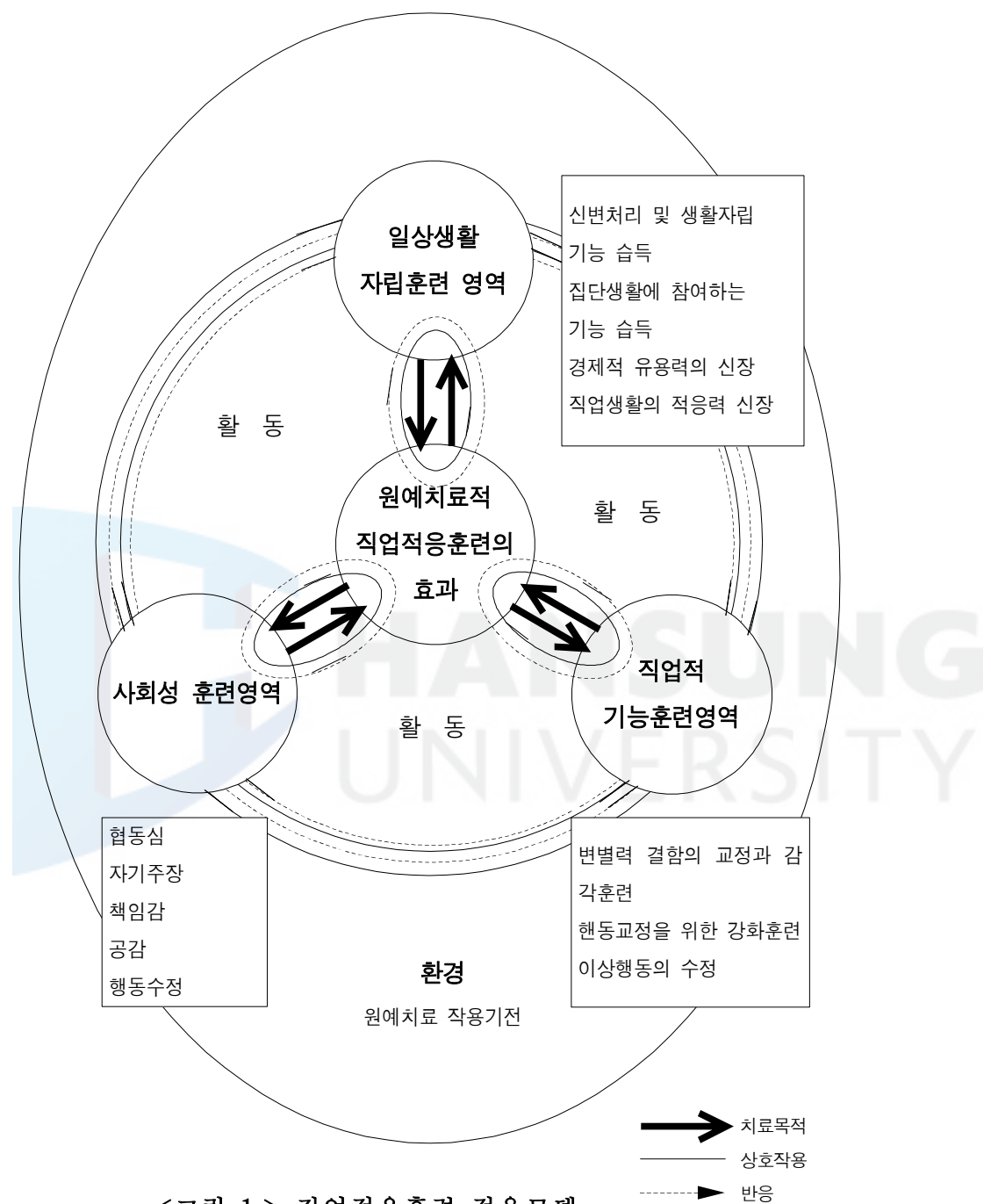
3-2 사회성 훈련

사회성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남과 어울려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행동을 늘리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줄여서 또래나 주위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주위 행동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성이란 개인이 가지는 선천적인 소질(가능성)성 후천적 경험 등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언어능력, 통찰력, 판단력 등이 결핍 후천적 경험에도 많은 제안됨을 갖게 되므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다.

3-3 직업 전 기능훈련

지적 및 행동장애로 인해 행동능력이 제한되며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빈약한 자아 개념을 가지며 이로 인 한 직업의식의 결여, 부정적인 자아의식, 비현실적 동기형성, 경직과 행동 및 성격상의 견고성, 작업 실패 경험의 누적, 전이현상 열 악, 추상능력의 제한과 정의적 부조화 등이 있다(조 인수, 1989)이런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작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능습득에 문제를 주는 변별력 결함의 교정과 감각운동훈련, 행동 느린 교정을 위한 강화훈련, 방해 행위나 지나친 행동이상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이 상춘, 1933)



<그림 1.> 직업적응훈련 적용모델

4.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화훼장식은 절화, 절엽, 절지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출하는 작업이며, 생화를 사용함으로써 원예 치료적 가치 및 직업재활의 효과를 보여주는 일석이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소재 다듬기나 가위나 칼, 톱으로 자르기, 구부리기, 꽃기 등의 일련의 화훼 디자인 과정들은 훌륭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남명희, 2006). 또한 최근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꽃꽂이를 이용한 원예치료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작업수행능력과 생활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은 물론, 사회적 상호작용과 충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주의력이 증가하고 책임수용이 증가하여 취업 후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송정은, 2003).

또 다른 한 연구에 의하면, 꽃꽂이 프로그램 후 결과물을 통하여 가족 간의 화목도가 높아졌으며,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꽃꽂이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작업의 정확성, 인내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느낌이 희망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훨씬 높아졌음이 판명되었다(윤 숙영, 2002). 이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성격 및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꽃장식과 심기 위주의 단순하고 반복된 프로그램을 실시한 어느 그룹연구의 결과도 매우 흥미롭다. 연구자들은 정신지체장애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꽃 색상과 향기를 통한 시각, 후각, 촉감을 자극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흙을 이용한 심기로 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수업에 대한 긴장도를 완화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에 대상자들의 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으며 공격성이 감소되어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교류하였고 대상자들의 불안, 긴장, 적극성, 충동억제, 신경질, 자신감, 고독감, 감정표현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화훼 디자인의 큰 특징인 상품성을 이용한 케익 만들기, 잔디인형, 벽장식 프로그램 등으로 정서적 안정으로 문제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품성 있는 작업을 함으로서 내재된 직업재활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민정 외, 2007).

화훼디자인은 2가지 이상의 화훼류를 함께 꽃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개인 작품에서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통해 지각되도록 창작된 표현형식으로 인

간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으며,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조형적 행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진미자, 2001).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러한 화훼디자인을 통하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기르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화훼디자인 프로그램은 직업적응에 문제성을 가진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직업적응과 직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화훼디자인은 교수법에 있어서 언어적으로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조적이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로서 더없이 유용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화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화훼 산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화훼디자인 상품으로는 꽃바구니, 꽃다발, 분화 포장 등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정해진 형태의 디자인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반복학습 및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만 있다면, 직업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화훼장식기능훈련을 이용한 전문적인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작업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원예치료 (화훼장식기능훈련)에 이용할 수 있는 독창적 인적인 모델개발과 이를 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소유한 원예치료사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즉 원예치료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화된 직업재활교육과 상업적 활용도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자의 배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 내지는 의학적인 제반지식을 아울러 갖춘 원예치료사가 양성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것은 정상인에 비해 예측 불가능한 대상자의 변화 정도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구이기 때문이다(조문경, 2003). 이렇게 전문화되고 훈련된 원예치료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사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의 훈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직업재활 훈련의 질 향상과 기술이 축적되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생산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 화훼장식기능훈련 이란

꽃꽂이란 꽃과 꽃이의 합성어로서 꽃과 줄기를 흔들림 없이 자연적질서의 파괴를 가급적 삼 가해 고정시켜 물에 꽂아주는 과정, 보고 즐길 수 있는 관상 적 개념의 과정이다. 화훼디자인이란 자연적 소재인 식물, 꽃을 중심으로 관상의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인위적 소재를 이용하여 인간의 목적이나 의도를 세부적 초안 속에 이루어 지는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디자인의 조형요소를 의도적 선택으로, 아름다움을 내제 시킨 창조적 . 유기적 . 객관적 실물체로서 시간적 공간적 조형적인 예술의 총체적 인 종합예술로 정의(이선자, 2007). 즉 화훼디자인의 기본개념은 “자연과 조형위에 성립되는 시, 공간 예술” 이라고 말할 수 있다(Yoon, 2006). 현재 국가 자격증 체도를 집행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도 화훼장식기능사 자격 명칭으로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꽃꽂이 화훼디자인 화훼장식 원예장식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화훼장식, 용어를 이용 화훼장식기능훈련이란 (이선자, 2007) 꽃과 식물을 중심소재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 성취, 지시가 내포된 디자인적인 개념에서 몸통이나 팔다리의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으로서 맨손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꽃과 식물을 심고, 자르고, 꽂고, 휘는 등의 동작에서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상 필요한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기능훈련과정으로 정의 다시 말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화훼장식 활동(training)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인 능력 및 작업 기술을 일반화하여, 이를 전문적인 재활능력(rehabilitation)으로 향상 시켜 직업획득 및 유지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화훼장식기능훈련” 이라 한다. (이선자, 2007)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1. 연구대상 개관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A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29까지 주 1회, 2시간 씩, 총 32회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신지체장애 등급판정에 의거하여 진단된 자들로, 거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이유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였고, 연령은 20세 이상,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출근 후 제과와 제빵에 관련된 단순작업에 근무하였으며, 이 가운데 치료군 대조군 각각 10명 씩 선정하여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화훼장식기능훈련 실행, 이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32회 차에 걸쳐 각 회 차 별로 드러난 관찰의 결과를 직업적응 영역 가운데 직무수행, 수익창출, 일상생활, 정서개발의 4가지 영역으로 압축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참여대상 인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 12명, 여자 8명이고 장애정도는 1급 1명, 2급 11명, 3급 7명이었으며,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생활 연령은 평균 25.23세, 사회성 연령은 평균 13세였다. 치료군 대상자 중 1명 남자 2급인 K군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진행 중도에 탈락하였다.

3.유무형의 자원 확보

본 연구의 임상에 참여한 인적자원은 주 원예치료사 1명, 보조 원예치료 1명, 으로 구성 주 원예치료사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1급 치료사로 15여년 임상경험과 30여년의 화훼디자인 경험을 갖춘 자 이며 보조 원예치료사는 석사과정졸업 1급 치료사

자격을 갖춘 자로 두 치료사 모두 원예치료 전공을 한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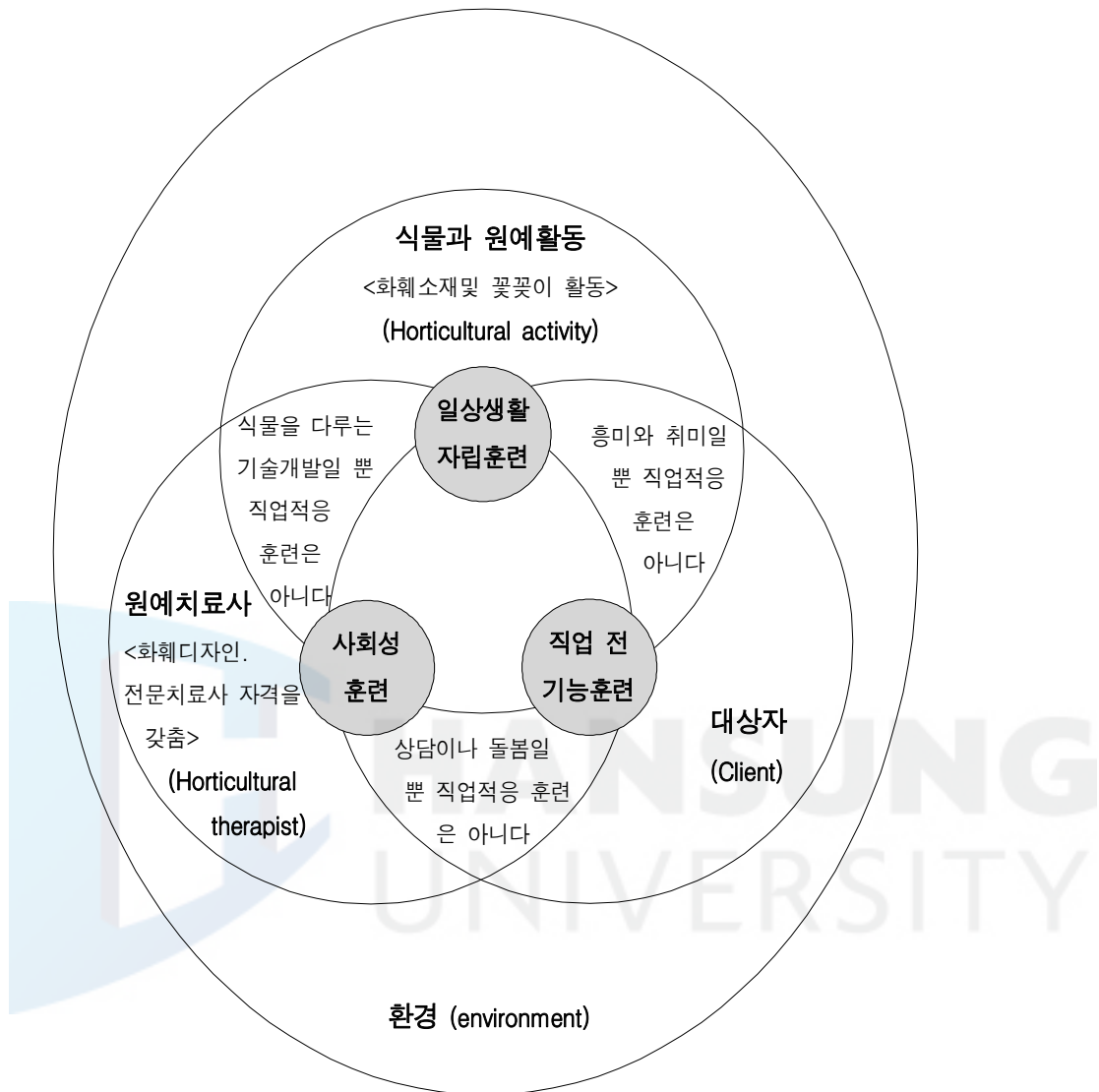
보조 인적자원으로 자원 봉사자 2명으로 참여인원은 총4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장소로는 직업재활 보호작업장내의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제 2 절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설계는 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모델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를 실시한다.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을 브롤린(Brdlin, 1982). 과 클라크(Clark, 1979). 두 학자의 이론에 근거한 일상생활자립훈련 영역, 사회성훈련 영역, 직업적 기능훈련 영역으로 구성. 직업적응훈련 접근 방법과 내용에 근거한 모델 <그림1.> 기초 원예치료의 세 가지 요소와 역동성 모델에 도입하여 <그림2.>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중에서(이선자,2007). 꽃다발, 꽃바구니, 부케, 사 방화 을 활용 보호 작업장근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적용 실시 시작하기 전 후 사전 검사를 통해 집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 동일한 작업환경과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을 통제하여, 프로그램 외의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직업적응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이며, 그에 따른 종속 변인은 직무수행능력, 수익창출, 일상생활(사회성), 심리 및 정서적(자아 존중 감)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선자(2007)의 기존연구에서 화훼장식기능훈련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작업수행능력 향상 및 직업재활 가능성을 입증한 근거를 토대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한 형태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프로그램의 직업 적응 및 일상생활 그리고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안정적인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직업선호도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작품을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어지는 꽃다발, 꽃바구니, 사 방화, 부케 만들기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원예치료 직업적응 훈련의 세 요소와 역동적 모델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계획

1-1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한 재료 및 도구

본 프로그램에 사용한 주 소재는 서울 반포 구 소재 꽃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주 소재로는 장미(*Rosa spp.cv.sacha*), 카네이션(*Dianthus caryophyllus*), 네프로네피스(*Nephrolepis cordifolia*), 국화(*Dendranthema grandiflora*), 나리(*Lilium spp.*), 루스카스(*Ruscus spp.*), 유칼립투스(*Eucalyptus spp.*), 송악(*Hedera rhombea*), 말채(*Cornus walteri*), 구 피아, 아이비 잎을 사용하였으며, 부재료는 플로랄 폼, 바구니(18cm/25cm), 플라스틱 화기(25cm/12cm.둥근형),리본(5cm.3cm)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화훼장식 프로그램은 크기, 구성, 형태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꽃다발

① 사용된 소재는 네프로네피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루스카스를 사용, 부재료로는 철사, 리본, 노끈, 부직포를 사용하였다. 전체작품의 크기는 가로(25cm)/세로25cm/높이(35cm)며 형태는 Hand-tied형, 사실적 균형(actual balance)이다.

② 네프로네피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말채를 사용 부재료로 철사, 리본, 노끈을 사용하였다. 전체 작품 크기는 가로(20cm)/세로20cm/높이(30cm)며 형태는 Hand-tied형, 구조적형태(Structure)이다.

2). 꽃바구니

① 사용된 소재는 네프로네피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루스카스, 송악, 부재료는 플로랄 폼, 바구니(18cm/25cm)를 사용하였다. 전체작품의 크기는 가로

(25cm)/세로25cm)/높이(25cm)이며, 형태는 둥근형(round)의 시각적 균형(Visual balance) 형태이다.

② 네프로네피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루스카스, 부재료는 플로랄 폼, 바구니(18cm/25cm)를 사용하였다. 전체 작품의 크기는 가로(25cm)/세로25cm)/높이(25cm)이며, 형태는 자연줄기 이용한 형(Natural Stem)의 시각적 균형(Visual balance) 형태이다.

3). 사 방 화

① 사용된 소재는 네프로네피스,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루스카스, 송악, 부재료는 플로랄폼, 플라스틱 화기(25cm/12cm.둥근형) 형태는 둥근형(round)의 시각적 균형(Visual balance) 형태이다.

② 사용된 소재는 네프로네피스, 유색장미, 유색카네이션, 유색국화, 구 피아, 루스카스, 부재료는 플로랄 폼, 플라스틱 화기(25cm/12cm 둥근형) 형태는 비데마이어¹⁾형(Biedermeier)의 시각적 균형(Visual balance) 형태이다.

4). 부 케

① 사용된 소재는 백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 피아, 아이비 잎, 난 잎과 부재료 부케용 수직 형 홀더, 리본(5cm.3cm)를 사용하였다. 형태는 둥근형(round)의 대칭형(Symmetrical balance) 형태이다.

② 사용된 소재는 유색백장미, 유색카네이션, 유색국화, 구 피아, 아이비 잎, 난 잎과 부재료 부케용 수직 형 홀더, 리본(5cm.3cm)를 사용하였다. 형태는 비데마이어형(Biedermeier)의 시각적 균형(Visual balance) 형태이다.

1) 비데마이어(1815~1845): 1850년에 시인 L. 아이히로트가 독일의 잡지 <후리겐테 부레테> 속에 등장한 2인조 소시민적 속물 비더맨과 분메르 마이어의 이름을 조합 시켜 비데마이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꽃을 공간없이 라운드 형으로 소재의 특징을 살려 뽀뽀하게 돌려 꽂는 디자인.

1-2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전문성, 상업적으로 상품성의 가치로 선호되고 기술적 훈련기능이 단순화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전반기는 기초 형으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모델 (이선자,2007).부터 실시 일상생활 자립능력영역, 사회성훈련영역을 주로 훈련지도 후반기에는 전반기 실시한 형태를 약간 응용, 약간소재를 추가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영역, 사회성훈련영역, 및 직업적 기능훈련을 집중 강화하였다.

프로그램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자르고, 휘고, 끼고, 뽑고, 색 선별, 분류, 향기, 개수, 계할 감, 길이측정, 양의 조절, 발표력, 손과 협의 력, 기억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하여 생활자립 기능 습득, 집단 생활참여 기능, 협동심, 자기주장, 공감, 행동수정 등을 향상 시키고 저 하였으며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평가, 선물 후 부모와 주변인들의 반응을 통하여 사회성 및 자기 존 중감 향상, 직업생활의 적응력, 책임감 , 행동교정을 위한 훈련 등으로 실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 하고 저 하였다.



<표 1.>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 프로그램 (전반기)

	원예치료 및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전반기 16회)																
	목표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도 입	라포 형성 및 동기 부여	일상 생활 자립 및 사회 성	신변자립 및 집단생활 참여기능 습득 협동심 지시사항 준수 공감		F l o o r q u e s t i o n	C o o r d i n a t i o n	B r i d g e t h e r	F l o o r q u e s t i o n	C o o r d i n a t i o n	B r i d g e t h e r		F l o o r q u e s t i o n	C o o r d i n a t i o n	B r i d g e t h e r		F l o o r q u e s t i o n	C o o r d i n a t i o n	B r i d g e t h e r	
전 개	화훼 장식 기능 훈련	사회 성 및 직업 기능	협동심 대인관계 자기주장	B o u n d e d	w o r k	n e t w o r k	a n d	B o u n d e d	w o r k	n e t w o r k	a n d	B o u n d e d	w o r k	n e t w o r k	a n d	B o u n d e d	w o r k	n e t w o r k	a n d
			변별력 교정, 기술력 향상 감각운동 훈련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정 리	발표 및 평가	일상 생활 자립 및 직업 기능	자립생활 향상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이동능력 대인관계 직업탐색 강화훈련 이동능력 행동수정																

<표 2.>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화훼장식 프로그램 (후반기)

원예치료 및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후반기 16회)																	
목표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도 입	라포 형성 및 동기 부여	일상 생활 자립	자기관리 집단생활 참여기술	B o u n d a r y	F l o o r q u e s t i o n n a i r	C e n t r a l B o u n d a r y	B r i d g e	B o u n d a r y	F l o o r q u e s t i o n n a i r	C e n t r a l B o u n d a r y	B r i d g e	B o u n d a r y	F l o o r q u e s t i o n n a i r	C e n t r a l B o u n d a r y	B r i d g e	B o u n d a r y	F l o o r q u e s t i o n n a i r	C e n t r a l B o u n d a r y	B r i d g e
		및 사회 성	자율성 협동심 책임감 공감																
전 개	화훼 장식 기능 훈련	사회 성 및 직업 기능	협동심 대인관계 자기주장 자아개념	B o u n d a r y	W o r k s h e e t	Q u e s t i o n n a i r	B o u n d a r y	W o r k s h e e t	Q u e s t i o n n a i r	B o u n d a r y	W o r k s h e e t	Q u e s t i o n n a i r	B o u n d a r y	W o r k s h e e t	Q u e s t i o n n a i r	B o u n d a r y	W o r k s h e e t	Q u e s t i o n n a i r	B o u n d a r y
			변별력 및 전이현상 강화. 감각운동 훈련.																
정 리	발표 및 평가	일상 생활 자립 및 직업 기능	생활자립 기능습득 이동능력 직업적응 력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강화훈련 경제적 유용력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화훼장식 프로그램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화훼장식 프로그램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자아 존중 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시전보다 사회성이 증가될 것이다.

가설 4.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제 3 절 연구도구

1. 자아 존중 감(self-esteem)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 존중 감(self-esteem) 검사는 Coopersmith(1967)와 Craighead(1988)의 연구를 참조한 최 보가와 전 귀연(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지는 자기기입설문지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총체적 자아 존중 감(general self-esteem), 사회적 자아 존중 감(social peer self-esteem), 가정에서의 자아 존중 감(home parents self-esteem), 학교에서의 자아 존중 감(school-academic self-esteem)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영역의 점수들의 합이 총 자아 존중 감 의 점수가 된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경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작업수행 평가도구(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작업수행 평가는 윌리엄스(2000)가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작업수행 평가 지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윌리엄스 연구에서의 작업수행 평가지의 신뢰도는 .98이고 타당도는 .96이다. 이 척도는 작업 전 기능과 작업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수행은 이 둘의 점수를 합하여 2로 나눈 값으로 평가된다. 8-10점은 대상자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준, 6-8점은 대상자가 주기적으로 최소한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수준, 4-6점은 가끔 다른 사람의 원조가 필요하고 관찰을 필요로 하는 수준, 2-4점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다른 사람의 관찰을 필요로 하는 수준, 0-2점은 항상 관찰함에도 불구하고 과업을 해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각각 해석한다.

또한 전체 과정이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학생의 작업수행 능력의 성취와는 관계없이 각 단계별로 두 달 동안 시행하였다. 작업 평가지에는 평가단계, 내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3.>작업수행 평가지의 구성

단계	내 용		문항 수
초보 단계	작업 전 기능	시간엄수, 출석, 개인위생, 인식	4
	작업태도	존경심, 사회성, 태도, 참을성, 동기, 지시사항준수, 인내심, 정서적 안정, 주의, 의사소통	10
1단계	작업 전 기능	시간엄수, 출석, 개인위생, 안전의식, 상호작용, 지도수용, 인식, 조직기능, 적응기능, 과제과정 준수	10
	작업태도	초보단계와 같음	10
2단계	작업 전 기능	시간엄수, 출석, 개인위생, 안전의식, 팀워크, 협동, 적응, 조직기능, 구직기술, 신뢰성	10
	작업태도	초보단계와 같음	10
3 단계	작업 전 기능	시간엄수, 출석, 개인위생, 안전의식, 상호작용, 과업의 시작과 끝, 수행기능다듬기, 자발성, 문제해결능력, 신뢰성	10
	작업태도	초보단계와 같음	10
4 단계	작업 전 기능	시간엄수, 출석, 개인위생, 이동능력, 상호지도수용, 도움요청, 상호작용, 자발적 과제계획수립, 금전관리, 시간 관리 기술개선	10
	작업태도	초보단계와 같음	10

<표 3.>에서 보면 작업수행은 초보단계와 I 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초보단계의 작업 전 기능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각 단계의 작업 전 기능과 작업태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의 작업 전 기능은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작업태도는 초보 단계.

제 4 절 자료처리 및 분석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측정된 직무수행능력, 자아 존중 감, 사회성 평가 자료와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측정된 평가 지들을 바탕으로 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대응표본검증(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화훼장식의 작업능력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작업량에 따른 수익창출 증가분을 검토하였다.



제 5 절 연구의 제한점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은 각 시설마다 여건이나 작업장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A작업장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장애인시설 또는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작업장의 내외부적 환경조건과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대상은 성인 정신지체장애인 20명(실험 군, 대조 군 각각 10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대상자 10명이 공통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등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연구의 효과성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 밖에도 대상자에 따라 선호하는 화훼장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작업 물에 대한 만족도와 반응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훈련받는 특성상 대상자 개개인별 선호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구성이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훈련이 이어질 경우도 있다. 또한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특정기관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유의 표 집 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대조군을 두고 실험군 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나,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보호 작업장의 좁은 공간의 특성상 일반인 대조군을 두지 못하였다. 더하여, 대상자 개개인들의 가정이나 생활환경 등의 다양한 종속변수들에 대한 비교에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원예치료의 효과가 정신지체장애인의 본인의 직업태도 및 작업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원, 사회·경제적인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1주에 한 번의 교육으로 치료사는 계속해서 대상자 관찰이 불가능 등도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여러 가지 언급한 제한점을 가지고 시작된 연구였으나 담당 복지사와 보조봉사자 선생님들의 대상자 개인별일지기록을 참고, 피드백이 객관적 근거로 중요한 연구의 모태가 된 것이다.

제 4 장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에 있어서의 화훼장식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집단 간 상호 차이를 확인하고 차후 실험으로 인한 효과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집단간 동질성 검사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작업수행	0.844	1	17	0.371
사회성	7.434	1	16	0.288
자아 존 중감	4.392	1	16	0.400

이상의 동질성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군 대조군 두 집단의 경우 발달장애 정도에 따른 작업수행, 사회성, 자아 존중 감의 동질성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치하였으며 이는 차후 분석 과정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 절 직무수행능력 향상 측면

작업수행평가의 응답을 퍼센트로 변환하여 대응 T검증을 실시하여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평가 평정 구분에 따르면 프로그램 전의 작업수행은 28.68%로 미흡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후 작업수행은 77.63%로 증가하여 평균이상의 작업수행을 보여주었다. 대응 T 검증결과 그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작업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7.276$, $df=9$, $p=0.000$). 대조집단에서는 작업수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수행 전후차이분석

작 업 수 행	실험군(t: -7.276 ^{***})				대조군(t: -.722)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8.68	12.23	77.63	24.91	28.57	13.14	35.63	14.91

다양한 작업 중에서도 대체로 수준이 낮은 조립작업을 담당하던 이정*, 양 영*, 훈련생은 반복적인 프로그램의 즉 화훼장식기능훈련 통해 점차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조립라인에서 벗어나 다소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요하는 포장라인으로 옮기게 되었다. 포장작업은 꼼꼼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작업으로서 자그마한 꽃들을 조심스럽게 다뤄 색의 조화에 맞게 배치하고 깔끔하게 꽃을 포장하는 활동을 수개월동안 하면서 포장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꽃 자르기에서는 집중력과 안전의식, 꽃 다듬기를 통해서는 참을성을 가지면서 작업태도 향상이 훈련되었고, 끈으로 묶기와 포장지를 겹치기 작업에서는 꼼꼼한 작업을 요하여 개인적인 잠재능력이 향상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방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꽃 의 색, 형태, 크기 등을 분류, 꼽는 비데마이어 형태는 특히 조립라인, 포장라인에서 요구하는 집중력과 선별력 일의순서를 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인 것은 화훼장식기능 훈련프로그램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직업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업능력평가서와, 작업량 체크, CIS-A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행된 하반기 임금평가에서 원예치료 참여자들 9명이 등급이 올랐거나 유지되었다. 나머지 한 명은 하반기 임금평가 전에 타 기관으로 이적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 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략 100%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급 정신지체장애인 이정*은 조립라인에서 포장라인으로 옮길 만큼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 밖에 이정을 비롯하여 양 영*, 신지*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에 쓰일 부자재

를 공급해야지만 제자리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쓸 꽃과 바구니, 오아시스, 가위 등을 준비하는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작업장 내에서도 자신이 맡은 작업에 쓰일 부자재를 직접 준비하여 작업하고 완료하는 등의 자발적, 독립적으로 일하고 지시에 따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웠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 기능훈련 의 또 다른 장점은 장애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언어를 통하여 하는 설명 보다는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더욱 빠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직무수행능력 향상은 일찍이 모홀리-나기²⁾가 주장했던 통합적 교육과정의 도입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이 깊다. 화훼장식과 관련된 모홀 리-나기의 통합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전인교육, 둘째, 모든 인간은 재능이 있다는 것, 셋째, 이성과 감성의 조화, 그리고 넷째 예술교육이 그것이다. 그는 이 네 요소 가운데서도 ‘모든 인간은 재능이 있다’라는 측면에 특별히 주목하였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의 본성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깊은 능력이란 바로 감각체험을 받아들여 획득하는 능력이며, 바로 생물학적 재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구, 2001). 본 연구를 통해 이런 감각적 능력 혹은 생물학적 재능은 사실상 정신지체장애인들 에게도 소유된 것이며, 화훼장식이라는 직업재활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겉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2) 나즐로 모홀리나기: 모든 인간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재능의 개발을 통해 감각적 체험이 창조적 활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었다; 바우하우스 p93-94

제 2 절 수익창출 측면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 보호 작업장에서의 생산량 증가는 곧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높은 훈련생 임금 지급, 훈련생의 경제적 독립으로 이어진다. 상반기 때에는 진행하기 어려웠던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요하는 작업과 대량작업이 하반기 때에는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업체의 손난로 포장작업과 문구세트 작업과 1300업체의 문구세트 작업은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물량도 대량이었고, 작업장에서 작업한 생산품이 바로 판매처로 납품되는 제품이므로 불량률이 없어야 할 만큼 민감한 작업이었다.

아래의 두 표는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A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에서 화훼장식 프로그램 후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작업성과가 월별 수익금 증가로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훈련생 직무수행능력이 상반기(2009.)<표 8.>때의 수준이었다면 작업 의뢰를 거절했겠지만 약간씩 직무수행능력이 다소 향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업체의 의뢰를 승낙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수익창출로 이어져 상반기(2009.)<표 8.> 수익 약450만원 달성한 것과 비교 하반기(2009.)<표 6.>수익은2.3배 이상 향상된 1,070만원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가장 많은 임금이 지급되었던 11월 달에 훈련생 중에 김 효*는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이를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대가는 매우 값진 것임을 느끼는 것과 그 대가로 자신에게 상을 주는 행위는 자기존재감의 향상과 미래의 독립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중에서 자르고, 휘고, 끼고, 꼬고, 색 선별, 분류, 향기, 개수, 계절감, 길이측정, 양의 조절, 발표력, 손과 협 의 력, 기억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하여 생활자립 기능 습득, 집단 생활참여 기능, 협동심, 자기주장, 공감, 행동수정 등을 향상 시키고 저 하였으며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평가, 선물 후 부모와 주변인들의 반응을 통하여 사회성 및 자기 존 중감 향상, 직업생활의 적응력, 책임감 ,행동교정을 위한 훈련과정에서 얻어진 효과로 의 목표인 간접적인 이익창출의 의미는 완전독립, 경제적 독립의 가능성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월별 매출 증가의 요인이 순수한 원예치료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 및 직무환경 등 외생변수들을 평가할 수 없었으므로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결과로 얻음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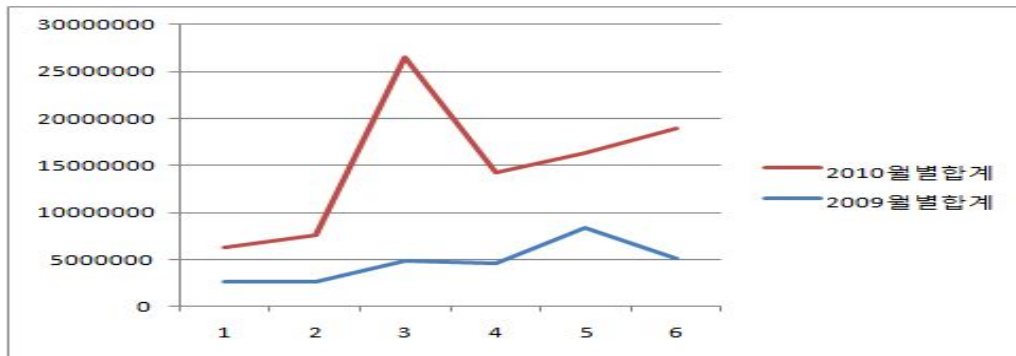
<표 6.>2009년 하반기 수익금 현황 (단위:원)

월	제과제빵 수익	임가공 수익	월별 합계
7월	717,337	1,979,320	2,696,657
8월	1,134,260	1,451,643	2,585,903
9월	4,556,705	359,111	4,915,816
10월	3,650,108	912,442	4,562,550
11월	4,127,442	4,313,015	8,440,457
12월	4,680,344	444,986	5,125,330
합계	18,866,196	9,460,517	
총계			28,326,713

<표 7.>2010년 상반기 수익금 현황 (단위:원)

월	제과제빵수익	임가공수익	월별합계
1월	2,426,313	1,207,920	3,634,233
2월	3,234,939	1,721,920	4,956,859
3월	20,644,145	928,010	21,572,155
4월	6,306,650	3,336,620	9,643,270
5월	7,802,800	84,640	7,887,440
6월	13,441,564	437,000	13,878,564
합계	53,856,411	7,716,110	
총계			61,572,521

<표 8.>수익금 현황 그래프



(출처, 보호작업장의 년말 결산2009 ,2010상반기)

이 밖에도 화훼장식을 직업으로 삼고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우수한 이익을 창출해냄과 동시에 본인의 경제적인 독립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 백 웅*원장이 운영하는 천안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이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포함한 중증 장애부터 뇌성마비, 자폐, 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주요 생산품은 조화, 카드 외에도 새로운 제품으로 액세서리나 소 품류의 압 화 등 새 상품을 개발해낸다. 보호 작업장 실무자들은 새 상품 개발을 위해 며칠씩 서울의 생산업체에 다니며 기술을 익혀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에게 전수했고, 또한 상품 질 개선을 위해 나사렛대 플라워디자인학과와 산학협정을 체결, 지도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2004년 월평균 233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5년에는 한때 418만원까지 증가했다. 백 웅*원장에 따르면 적은 돈이지만 생전 처음 월급을 받아본 장애인들도 적지 않고, 또한 자기계발에 눈을 뜬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단순 사회 적응 훈련이나 친목도모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금 배당이 장애인들의 성취감과 자신감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라는 목표는 장애인들 내면에 잠재된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능동적이고 개척하는 삶에 눈을 뜨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조화로 만든 리스제품이나 장식용품, 포 푸리, 생화를 특수하게 말려서 약품 처리한 드라이플라워 등이다.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한 작품들은 상당히 높은 제작 수준을 자랑하며 전문 업체에서 비장애인들이 생산한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제 3 절 일상생활 측면

사회성 검사지 응답을 퍼센트로 변환하여 대응 T검증을 실시하여 화훼장식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대조집단에서는 사회성의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는 화훼장식 프로그램 실시 전 사회성은 46.67%였는데, 화훼장식 프로그램 실시 후에 68.33%로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417$, $df=17$, $p=0.003$). 다시 말해 원예치료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표 9.>프로그램에 따른 사회성 전후차이분석

사 회 성	실험 군($t: -3.286^{***}$)				대조 군($t: -1.687$)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6.67	22.75	68.33	16.18	44.97	21.45	51.33	12.18

사회성이 양호하여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반면 사회성이 다소 미흡하여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장애인들도 더러 있다. 마찬가지로 본 작업장의 훈련생들도 사회성이 양호한 훈련생과 미흡한 훈련생이 함께 있다. 그 중에 가장 사회성이 미흡한 훈련생은 남성으로 청각장애와 정신지체를 함께 지닌 중복장애인이다.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므로 동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자주 갈등이 발생하였다. 동료들이 친해지고 싶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본인을 때렸다고 표현하고 동료들이 본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며 다투었으며, 동료들의 핸드폰 번호를 동의 없이 저장하여 욕설이 있는 문자를 보내는 문제행동을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에 센터 이용을 종료하게 되었으나 남성의 어머니 부탁으로 화훼장식기능훈련을 통한 원예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약 3,4개월 진행 후 남성의 문제 행동은 서서히 감소하였고 동료들과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될 즈음엔 가장 갈등이 잦고 깊었던 조환*과는 가장 친밀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여 친한 동료를 지목하라면 서로를 지목하는 행동을 보

이기도 했다. 쉬는 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작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다. 그러나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원예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동료들 도와주면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이해하며 협동심과 동료애가 형성되어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이 한 작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대상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작업 물을 비교해 보는 등 훈련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본인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직접 만든 꽃 장식 등 여러 가지 작품을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선물함으로써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한 것도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훈련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훈련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특이 사항 및 행동 변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훈련생들이 초반기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재료를 나누어 쓰면서 작업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습득하였고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제 4 절 심리 및 정서적 측면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화훼장식 프로그램 전후의 자아 존 중 감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화훼장식 프로그램 실시 전 자아 존 중 감의 평균($M=2.43, SD=0.66$) 이 화훼장식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 존 중 감의 평균($M=3.24, SD=0.94$)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207, df=17, p=0.005$). 하지만 대조집단에서는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화훼장식 프로그램을 통한 원예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자아 존 중 감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0.>프로그램에 따른 자아 존 중 감 전후차이분석

자 아 존 중 감	실험 군($t: -3.877^{***}$)				대조 군($t: -1.937$)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20	0.095	3.07	0.67	2.34	0.095	2.81	0.67

원예치료 훈련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예치료 참여자 중 김 혜* 화요일만 되면 “오늘 꽃 해요?” 라고 묻는 것이 일과가 되었을 정도이며, 조한* 화요일에는 그 어떤 날보다 표정이 밝다. 참여자 중에 가장 중증인 김 혜* 작업의 중단이 잦으며 하루에 작업량이 20개 안팎이다. 또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기 힘들며 하루에도 20번이 넘게 “집에 가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문제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금 김 혜* “집에 가요?”라는 말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밖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과 생각,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한정적인 어휘를 통해 사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제 있었던 일과를 이야기 하거나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등 상반기 대비 표현능력이 향상된 것이 관찰된다.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치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는 등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꽃을 통해 작품을 만들 때에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면서 의사표현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준* 자폐성장애로 작업에 대한 집중 시간이 매우 짧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네” 만으로 대답을 하고, 적게는 하루에 한번 많게는 하루에 2,3번 정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본인의 머리를 때리는 자해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부터 고함을 지르는 것과 자해를 하는 문제 행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거의 보기 힘들만큼 감소된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자폐성장애의 특성에 따라 표정이 다양하지 않아 웃는 표정이 찡그리는 듯 다소 어색했으나 웃는 표정도 자주 지으며 가끔은 소리를 내어 웃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인에게 있어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과 또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지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정에 변화가 온 것은 그만큼 타인의 표정을 습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그 훈련생이 조금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지* 직무수행과 일상생활 능력이 뛰어나 1등급의 급여를 받고 있는 훈련생이다. 그러나 뛰어난 직무수행능력과는 달리 미흡한 사회성과 제한된 표현능력, 다양하지 못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인의 것과 타인의 것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여 본인이 가져온 부자재를 동료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화훼장식기능훈련 과정을 통해 동료를 도와주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활동을 통해 모든 훈련생이 웃는 상황 속에서도 웃는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신지*가 지금은 동료들의 우스꽝스러운 장난에 웃는 얼굴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훈련생들 중에는 커플이 있었다. 여자 친구에게 주워진 소재 중 손질이 어려운 굵은가지는 잘라주고 가시가 있는 장미는 다듬어 주며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고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야! 예쁘지? 하고 자랑하면서 긍정적인 칭찬으로 서로의 사랑을 키우고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더듬더듬 언어적 표현을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서로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일반 청춘남여의 사랑표현과도 다름없는 자신 있는 자기표현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훈련생들의 서로 게임식으로 그동안 사용한 소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발표 기억을 못하는 동료에게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손짓과 발 짓 등의 몸으로 표현 하

여 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에선 타인에 의해 주의가 분산되거나 산만했던 모습이 크게 감소하였다 소재들을 손질 다듬고, 오아시스에 위치를 정하고 자른 소재를 썬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가늘고 강한 줄기, 예를 들어 미시 티 블루 등은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무르고 둔탁한 소재를 썬는 경우는 집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특성에서 어려서부터 학습된 익숙하지 않은 일에는 쉽게 포기, 의존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원예치료활동 중 실내 프로그램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아이디어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름으로 소개되므로 자신감과 존재감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 5 절 종합고찰

현실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이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보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직업재활을 마치고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소수의 정신지체장애인조차도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과 열악한 기계음에 노출되어 심신의 치료를 기대하기 보다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2차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이 연구의 서론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대인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심리적 치료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다룬 바 있다. 이런 전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원예치료 활동 중 원예치료를 이용한 화훼장식기능훈련과정은 아름다운 식물과 그 보조 재료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심신의 재활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로 하여금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직업을 갖고 더 붙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직업영역의 개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임으로 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 이 같은 장애인들의 작업수행능력의 향상은 작업장 내에서의 부수적인 이익창출은 물론 화훼장식기능훈련 과정을 자연스럽게 창업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수행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 전의 작업수행은 28.68% 으로 미흡하였지만 프로그램 이후 작업수행은 77.63% 으로 증가하여 평균이상의 작업수행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대조집단에서는 이러한 작업수행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작업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업능력평가서와, 작업량 체크, CIS-A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행된 하반기 임금평가에서 원예치료 참여자들 9명이 등급이 올랐거나 유지되었다.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적용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능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측면인 사회성에 미친 영향도 46.67%에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에 68.33%로 상승하였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또 다른

심리 및 정서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은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 자아존중감은 평균($M=2.43, SD=0.66$)이었고 화훼 장식 기능 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은 평균($M=3.24, SD=0.94$)로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훈련생들은 자진해서 모르는 것을 묻거나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등의 의사표현능력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작업수행능력과 자아 존중 감, 사회성 향상 등은 이선자(2007)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이번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상 의 연구의 프로그램은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 향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횟수가 증가될수록 훈련생 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성취감을 표현하는 등 매 시간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직무수행능력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창출 효과였다. 이것은 곧 훈련생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원예치료 활동 중 상품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화훼장식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직업선택의 폭은 더욱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문원예치료사가 아닌 타 영역의, 기능인, 유사 직업인들이 원예소재를 이용하여 활동내지 유사한 행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원예치료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때로는 적지 않은 오류를 주곤 한다. 따라서 원예치료프로그램과, 원예활동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원예치료사들만이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심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사회성 연령 평균 13세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연령을 갖은 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구성이나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이밖에 더 많은 체계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적용프로그램이 시급한 상황으로 생각이 든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선진국의 장애인들에 비해 고용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만큼 그들로 하여금 사회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조숙자, 2001).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융합되고 고용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 특히 원예치료

결과물 또는 직업재활교육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신규 및 재취업과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사후지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보호 작업장처럼 직업훈련의 올바른 효과를 위해서는 훈련 초기에 한 번에 그치는 평가가 아니라 훈련 중에도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정신지체인의 흥미를 고려한 작업 기술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 다양하고 끊임없는 작업 유도를 위해서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직원들 간의 공동능력으로 시장여건, 고용경향 및 고용주의 기술수행 요구수준에 관한 세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인간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사회통합으로의 재활이 가능하도록 시립이든 국립이든 정신지체장애인만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 직업 전문교육기관 등이 국가적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은 정신지체인의 작업능력 및 생활태도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작업능력 강화 및 생활태도, 자력 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화훼장식 기능훈련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입증에 위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 임상 연구를 함으로 보다 객관성 있는 전문성을 한층 더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화훼장식기능훈련 통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 감 향상 등, 직업재활치료 프로그램효과성이 (이 선자,2007).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로 적합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원예산업의 직업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간접적인 수익창출은 지금까지 이들 장애인에게 실시되었던 그 어떠한 직업훈련과 치료보다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미약하나마 확인되었다 수익창출 면에서 간접적인 면은 물론 직접적인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이 보다 확실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치료를 통한 직업재활효과를 줄 수 있다고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재활의 목표인 완전독립, 경제적 독립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을 이용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직업적응력 향상을 위해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개발교육의 도구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호작업장 내의 작업능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수익창출의 간접적인 효과를 끼쳤음을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놀랄만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성 및 직업적응력 향상은 부가적인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현실적으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든 장애인 집단 중 하나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이 그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보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근 여러 차원의 원예치료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 구체적인 치료를 통한 전문직업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전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작업현장인 근무 중인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직업적응향상을 위한 화훼장식기능훈련의 프로그램 효과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의 재 입증과 부가적인 효과로 인한 원예치료의 효과 및 기능을 확인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2009년 5월 26일부터 2009년 12 월 29일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T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성인정신지체인 대조군 10명 치료군 10명을 선정 연구하였다 치료군에게는 직업적응훈련 접근방법의 내용에 근거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원예치료의 세 가지 요소와 역동성 모델을 도입하여 화훼장식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32회를 실시하였다. 직업적응 효과 분석을 위해 직무수행, 수익창출, 일상생활, 심리 정서개발 4가지 영역에서 관찰을 시도하였으며 작업능력평가서, 작업량 체크, CIS-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반기 임금평가결과를 반영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와 작업수행 평가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자아 존중감 검사 도구, 작업수행 평가도구(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는 Williams(2000)가 미치는 효과를 재 입증 효과분석이 의미하는 부가적인 효과성도 원예치료의 효과로 더욱 확실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입증하고 화훼장식 기능훈련 프로그램으로 적용, 4가지 가설을 통하여 효과성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신규 및 재취업과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사후지도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

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보호작업장처럼 직업훈련의 올바른 효과를 위해서는 훈련 초기에 단기성 평가가 아니라 훈련 중에도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정신지체인의 흥미를 고려한 작업기술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 다양하고 끊임없는 작업 유도를 위해서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직원들 간의 공동능력으로 시장여건, 고용경향 및 고용주의 기술수행 요구수준에 관한 세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지체인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인간관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사회통합으로의 재활이 가능하도록 시립이든 국립이든 정신지체장애인만을 위한 전문직업학교, 직업전문 교육기관 등이 국가적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화훼장식기능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입증을 위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 임상연구를 함으로 보다 객관성 있는 전문성을 한층 더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어지는 간접적인 수익창출은 지금까지 이들 장애인에게 실시되었던 그 어떠한 직업훈련과 치료보다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수익창출 면에서 간접적인 면은 물론 직접적인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이 보다 확실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치료를 통한 직업재활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재활의 목표인 완전독립, 경제적독립이 아닐까 생각한다. 원예치료를 통한 화훼장식기능훈련은 정신지체인의 작업능력 및 생활태도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작업능력 강화 및 생활태도, 작업력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귀년, 「원예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강위영 외 7인, 공저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2009.
- 강정순, 「원예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곽병화 외 2인, 「원예치료효능과 그 특수성 구명의 필요성」, 고려대 원예학과 단국대 관상원예학과 서울여대 원예학과, 1999.
- 고언희, 「원예치료가 정신 및 지체 장애인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영희, 「원예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심리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금은정, 「원예치료가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회성숙도 및 작업평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성광,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이 고용성파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직업재활학 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 김성희 외 1인 「직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조사연구」, Vol.- No.1, 1999.
- 김소영,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이 직업인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소희,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정원 계획 및 시공과 이용만족도 평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은영, 「정신지체인의 직업흥미와 취업직종」, 단국대학교, 1996.
- 김재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원예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홍열, 「원예치료가 정신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1권, 제4호, 13-18, 2007.
- 남명희, 「화훼 디자인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자존감과 및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꽃예술학회, 2006.
- 남오철,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모델에 관한 연구: 은향 원예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노기보,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미영,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분석」,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명숙, 「유치원아동의 정서 및 학습에 미치는 원예치료의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1.
- 서정근 외 1인, 「원예 치료 과정의 적응과 실제」, 천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 손기철, 「학술총설-원예치료에 관하여」, 『원예학세계』 제2권 제3호-1997년 9월, 16-22, 1997.
- 원예치료,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제6권, 제1호, 25-44, 1999.
- 『실내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중앙생활사, 2004.
- 「원예치료의 뜻과 의미」, 『상담과 선교-2007년 겨울』, 6-27, 2007.
- 손기철 외 3인, 공저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 쿠북, 2006.
- 여광용 외 1인, 「정신지체인 직업적응을 위한 원예치료의 이론적 탐색」,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제8권, 제2호, 2001.

- 염승연, 「정신지체인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연구보고서』, 1995.
- 오대민 외 6인, 「국내 논문에 있어 원예치료 대상자별 프로그램 분석연구」,
『원예과학기술지』, 제24권, 제1호, 2006.
- 유완식, 「공단 고용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 유진희, 「원예치료활동이 생활시설 정신지체 여성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
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성류, 「화훼장식을 이용한 원예치료활동이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력에 미
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2009.
- 윤성은, 「화훼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민정 외 1인, 「원예치료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격 및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2007.
- 이상훈, 「중증 장애인 원예치료」, 국립재활원 2000재활요원교육자료, 2000.
- 이선자 외 3인, 「화훼장식기능훈련을 이용한 원예치료가 정신지체인의 작업
수행능력 향상 및 직업재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원예치료학과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2007.
- 이양훈,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 현황과 과제」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
집』, 9. 245-257, 2002.
- 이중구, 「모홀리-나기의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 정미화 외 6인, 「원예 치료가 개방 병동 정신 분열증 환자의 정신 건강 및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원예과학기술지』, 제22권, 제4호,
499-503, 2004.
- 조문경,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단계적 적용이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주

- 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숙자,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은숙, 「2009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실태분석 및 활용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9.
- 조현구,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진미자, 「화예디자인이 지닌 정서성과 기능적 효과」, 『한국화예디자인학회 논문집』, Vol.4 No.-, 2001. [KCI등재후보]
- 최영애, 「원예치료의 핵심요소」, 원예치료연구소 연구보고서, 『상담과 선교 - 2007년 겨울』, 28-46, 2007.
- 최영광,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 최옥숙, 「정신지체인의 고용유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한태림, 「장애인 적응훈련 교과과목 및 직종연구」, 조사연구, Vol.- No.4,, 1992.

기타참고자료

- 김경호, (2008). 『스트레스 해소의 새로운 방법 원예치료 대중화 선언』, 친환경 매거진, <http://www.digitalorganic.net>
- 김시내, 어느 정신지체 장애인의 대학생활, 한겨레 뉴스 칼럼, [http:// www.hani.co.kr](http://www.hani.co.kr)
- 김종인, (2010). 국민복지시대의 동반자 웰페어 뉴스. <http://www.welfarenews.net>
- 김청시, (2010). 하운재 꽃꽂이 쪽방강의실에서 원예로 장애치료를, 대한장애인신문, <http://www.onnews.or.kr>
- 김형득, (2009).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 남동신문, (2001). 재활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할 터, 디지털 남동신문, <http://www.namdong.co.kr>
- 도움나라 장애인서비스, <https://www.itall.or.kr>
-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 복지협회, (2010). <http://www.khta.or.kr>
- 소연, (2008). 함께 걸음. <http://www.cowalknews.co.kr>
- 에루화의 원예 치료 정원, <http://eluwha.tistory.com>
- 이보연 아동.가족 상담센터, <http://www.sangdam.kr>
- 이현정, (2006). 더하우스엔가든, <http://housengarden.kr>
- 윤평호, (200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 장애이해사이트, <http://edu.knise.kr>
- 최영광 사무국장,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주소, 정신지체애호협회.
- 최종옥, (2002). 정신지체아 교육.
- 한국플라워디자인교육원, (2004). <http://www.iflorist.co.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9). <http://www.freeget.net>

한국재활재단, (2007). <http://www.krfund.or.kr>

<http://www.hemovac.com>



2. 국외문헌

Goldenson, R. M. 1978.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Nelson. N.,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s Stat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p.24.

Relf, P. D. 1990. Psychological sociological response to plants : Implications
for horticulture, HortScience 25(1)

_____ 1981. Dynamics of horticulture therapy, Rehab. Lit.42(5-6)

Rogers, C. R. 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s, Harpoer & Row,
New York.



【부 록】

생활만족도 척도

(아래의 내용을 읽고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내 용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2. 당신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하십니까?					
3. 당신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만족하십니까?					
4. 당신은 요즘 심리적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5. 당신은 요즘 신체건강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6. 당신은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7. 당신은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있다고 느끼시 니까?					
8. 당신은 현재 사회생활에 만족하십니까?					
9. 당신은 요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10.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11. 당신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12.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시 니까?					

원예활동 수행능력 평가도구 (사회기술 상호작용영역)

항목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흥미 와 관심	1	치료사에게 식물이나 재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2	치료사의 질문에 대해 손을 들고 발표한다.					
	3	활동 중에 동료와 대화나 교류를 가지면서 활동에 참가한다.					
	4	대상자 자신의 작품명이나 작품 의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5	활동 시작 전에 식물이나 재료들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문제 행동	6	둘이 함께 쓰는 물건에 대해 다른 대상자가 다 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7	재료를 나누어 주거나 분배해 주는 집단적 상황에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8	활동 중에 다른 대상자를 건드리거나 추근덕거린다.					
	9	활동 중에 다른 대상자의 작품에 대해 불평을 갖거나 훼방을 놓는다.					
	10	활동 중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울음이나 과격행동(ex. 던지거나 깨거나 쏟거나 찢기 등)으로 표현한다.					
참여 성	11	활동 중에 었드려 있다.					
	12	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피로함을 호소한다.					
	13	활동시간 내에 즐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14	활동 중에 멍하게 앉아있다.					
자 신 감	15	활동 중에 자기 뜻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해 실망한다. (ex. '나는 맨날 왜 이럴까', '나는 원래 그래' 등)					
	16	활동 과정 중이나 활동 후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 없어 하거나 비관적인 말을 한다.					
	17	새로운 원예활동에 대해서는 시도하지 못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을 보인다.					
민 감 성	18	활동 중에 다른 대상자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한다.					
	19	치료사의 칭찬이나 꾸지람에 쉽게 반응한다.					
	20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의 존 성	21	활동시 다른 대상자의 작품모양이나 결정을 모방한다.					
	22	활동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체념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치료사나 보조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x. "나 못해"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23	활동시 치료사나 보조치료사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					
정서 불안	24	활동이 끝날 때까지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5	활동 중에 활동 장소에서 이탈한다.					
위 축	26	활동 중에 얼굴에 미소나 웃음이 없다.					
	27	활동 중에 얼굴 표정이 밝지 않으며, 기죽어 있다.					
욕구 불만	28	활동 중에 이유없이 짜증을 낸다.					
	29	활동에 대한 치료사의 지시에 불평한다.					

작업수행 평가지

대상학생이름: 날짜: 년 월 일 담당교사:

구 분	항 목	예	아니오
작업 전 기능	1. 시간엄수		
	2. 출석		
	3. 개인위생		
	4. 안전의식		
	5. 상호작용기능의 발달		
	6. 지도수용		
	7. 인식		
	8. 개인적인 조직기능		
	9. 과제적응 기능의 발달		
	10. 과제과정 준수		
작업 태도	11. 존경심		
	12. 사회성		
	13. 태도		
	14. 참을성		
	15. 동기		
	16. 지시사항 준수		
	17. 인내심		
	18. 정서적 안정		
	19. 주의		
	20. 의사소통		
작업수행 점수 합계			

원예치료 프로그램

꽃다발 ①
(hand - tied)
actual balance

대상	□정신 □재활 ■정신지체 □노인 □치매 □청소년 □어린이				
장소	■실내 □실외 □실내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난이도	□상 □중 ■하

일시	2009.5.26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꽃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인식. 치료사와 라포형성.		
원예치료사 의도	-긴장감완화를 유도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장점을 찾아본다		
준비물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피아, 네프로네피스, 루스카스, 철사, 리본 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주어진 소재를 정리한다	-자기 소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치료사가 먼저 시연을 한다.
전개	55 / 쉬는 시간 15	-꽃 이름 익히기. -장미와 카네이션 등을 시연에 따라 손질한다. -손질한 소재 분류 정리하기. -오른손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소재를 모은다. -끈 및 철사를 이용하여 묶는다. -포장지를 바닥에 깔고 묶은 꽃을 중앙에 놓는다. -포장지를 싸서 리본으로 묶는다.	-참여성을 향상시킨다. -지시사항 준수를 지도한다. -공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리	30	-주변 정리. -완성된 작품을 발표한다. -친구의 발표에 박수를 쳐 준다.	-집단생활 향상. -참여기술 유도
Tip	-꽃의 향기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참여성을 높인다.		

꽃다발 ②
(hand - tied)
structure

대상	□정신 □재활 ■정신지체 □노인 □치매 □청소년 □어린이				
장소	■실내 □실외 □실내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난이도	□상 ■중 □하

일시	2009.9.15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말채로 틀을 제작, 인내력과 참을성을 갖도록 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손가락과 팔의 근육 강화, 소재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변별력을 키운다.		
원예치료사 의도	-말채에 철사망을 만든다. -공간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소재의 특성을 살피도록 한다.		
준비물	장미, 카네이션, 국화, 구피아, 네프로네페스, 말채, 철사, 리본 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말채사용에 대한 시연을 한다.	-말채를 손질하는 법을 치료사가 시연한다.
전개	55 / 쉬는 시간 15	-소재를 정리 분류한다. -말채로 양팔과 손의 근육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말채를 등글게 고정시킨다. -등근 틀에 망을 만든다. -틀 속의 치료사의 시연 또는 지시에 따라 공간에 꽃을 끼운다. -끈 및 철사를 이용하여 묶는다. -리본을 단다.	-말채의 굵기에 따라 탄력성의 강도를 느끼게 한다. -작품제작 시연을 한다. -치료사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 친절히 개입한다.
정리	30	-주변 정리. -완성된 작품을 발표한다. -친구의 발표에 박수를 쳐 준다.	-직업기술 습득. -사회성 향상 및 대인관계.
Tip	-말채를 쉽게 엮는 요령을 알려준다.		

꽃바구니 ①

(등근형)

Visual balance

대상	☐ 정신 ☐ 재활 ☒ 정신지체 ☐ 노인 ☐ 치매 ☐ 청소년 ☐ 어린이				
장소	☒ 실내 ☐ 실외 ☐ 실내외	계절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난이도	☐ 상 ☒ 중 ☐ 하

일시	2009.8.25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꽃의 형태와 색, 모양, 종류를 인식하여 정리 한다 조작능력을 향상시킨다.		
원예치료사 의도	-절화의 생리를 이해시킨다. -소재의 특성을 파악, 작품에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여 선물하도록 한다.		
준비물	장미, 카네이션, 국화, 네프로네피스, 구피아, 루스카스, 송악, 플로랄 폼, 바구니 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오아시스 물 담그기.	-식물 생리를 이해 및 오아시스 역할을 알게 한다. -협동심
전개	55 / 쉬는 시간 15	-오아시스를 잘라 물에 담근다. -소재를 정리 분류한다. -소재의 쓰임에 따라 손질한다. -작품제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지지를 한다. -가장 예쁜 소재를 선정하여 중앙에 꽃도 록 한다. -중앙 꽃 주위에 어울릴 수 있는 꽃 을 스스로 선택하여 꽃도록 한다.	-감각운동을 통하여 꽃의 향 기나 형태를 변별할 수 있도 록 한다. -직업 탐색 및 강화. 기술력 향상 -치료사의 언어적 시연을 따 르도록 한다. 지시사항 준수.
정리	30	-주변 정리.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이야기 를 나눈다. -작품 제작 순서를 발표하도록 한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다 같이 참여하여 정리하도 록 한다.
Tip	-꽃 손질시 손실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오아시스를 물에 담그는 요령을 알려준다.		

꽃바구니 ②

(자연줄기형)

Visual balance

대상	☐ 정신 ☐ 재활 ☒ 정신지체 ☐ 노인 ☐ 치매 ☐ 청소년 ☐ 어린이				
장소	☒ 실내 ☐ 실외 ☐ 실내외	계절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난이도	☒ 상 ☐ 중 ☐ 하

일시	2009.12.15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스스로 소재를 선택하고 제작하도록 한다. 경제적 유용성을 익히도록 한다.		
원예치료사 의도	-식물의 구조를 이해시킨다.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소재의 사용 용도를 지지한다. -자아 성취감을 갖도록 한다.		
준비물	장미, 카네이션, 국화, 네프로네페스, 구피아, 루스카스, 플로랄 폼, 바구니 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오아시스 물 담 그리. -소재 정리방법을 시연한다.	-식물 구조를 이해시키고 작품제작에 이용한다. -지시사항 준수 및 공감하기.
전개	55 / 쉬는 시간 15	-물에 담긴 오아시스를 바구니에 고정시킨다. -식물의 꽃, 줄기, 잎을 연관시켜 인지하도록 한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 줄기는 한 쪽에 놓는다. -작품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시연한다. -오른쪽에 장미꽃을 꽂고 왼쪽에 장미 줄기를 꽂는다. -빈 공간에 나머지 꽃을 채운다.	-스스로 오아시스를 담고 바구니에 고정하도록 돕는다. 이동능력 및 자립성 향상. -장미→장미줄기 국화→국화줄기 카네이션→카네이션 줄기 (변별력 향상) -치료사의 언어적 시연을 따르도록 한다. 지시사항 준수.
정리	30	-주변 정리. -소감을 발표한다. -작품제작 순서를 릴레이식 발표한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발표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다음 순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중력 향상, 대인관계
Tip	-소재의 유용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사방화 ①

(라운드형)

Visual balance

대 상	☐ 정신 ☐ 재활 ☒ 정신지체 ☐ 노인 ☐ 치매 ☐ 청소년 ☐ 어린이				
장 소	☒ 실내 ☐ 실외 ☐ 실내외	계 절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난이도	☐ 상 ☐ 중 ☒ 하

일시	2009.06.09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소재를 살피고 이름 익히기 -감각운동훈련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원예치료사 의도	-소재를 보고 이름을 알아 맞추 도록 한다 -지시사항 준수하도록 한다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준비물	장미, 카네이션, 국화, 네프로 네피스, 구 피아, 루스카스, 송악, 프로랄 품, 프라스틱 화기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오아시스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보도록 한다 -소재 정리 분류를 하도록 한다	-식물 구조를 이해시키고 작품 제작 이용한다. -지시사항 준수
전개	55 / 쉬는 시간 15	-물에 담긴 오아시스의 무게를 손으로 느끼게 한다 -네프로 네피스를 삼각 자르기 한다 -용도에 맞도록 잘라 소재별 분류를 한다 -작품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시연한다. -오아시스에 둥글게 네프로 네피스를꽂는다 -중간 가장 예쁜 꽃을 꺾고 사이에 나머지 소재를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꺾는다	-스스로 오아시스를 담록 돕는다. 물이 오아시스에 담김을 이해 시킨다 - 소재의 향기, 색채,질감을 경험 하게 한다 -특징을 찾아보고 암기도록 한다 - 지시사항 준수.
정리	30	-주변 정리. -소감을 발표한다. -소재를 노트에 그리고 적어본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관찰 기록을 돕는다
Tip	-소재의 특성을 찾아 보고 치료사에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사방화 ②
(비데마이어형)
visual balance

대상	□정신 □재활 ■정신지체 □노인 □치매 □청소년 □어린이 사방화2				
장소	■실내 □실외 □실내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난이도	□상 ■중 □하

일시사방화2	2009.09.29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소재를 작품에 쓰임을 고려해서 손질 하도록 한다. -감각 훈련 자극 -공간 지남력을 향상시킨다.		
원예치료사 의도	-소재를 분류 손질하도록 한다 -소재별 분류해서 곱도록 돕는다 . -치료사는 시작과 끝을 마무리해준다		
준비물	유색장미, 유색 카네이션, 유색 국화, 네프로네피스, 구피아, 루스카스, 화기, 플로랄 폼.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오아시스를 물에 담그기. -소재를 같은것 끼리 잘라서 분류 정리한다	-치료사는 소재의 종류별 한 개씩 모델을 만들어 준다
전개	55 / 쉬는 시간 15	-오아시스를 건져 화기에 담는다. -모델에따라 모든 소재들을 자르도록 한다. -네프로네피스를 뾰족하게 자른다. -네프로네피스를 화기 둘레로 둥글게 꺾는다. -각각의 소재를 색채에 맞게 둥글게 한 라 인씩 채워나간다 -치료사의 시언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도록 한다.	-오아시스를 단단히 고정하도록 한다. -모든 소재를 특성과 색채별로 꽃도록 지지한다.
정리	30	-주변 정리. -제작 후 발표한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자유롭게 발표를 돕는다
Tip	-꽃의 표정을 찾아 안쪽으로 모아 꺾는다.		

부 케 ①

(라운드형)

symmetrical
balance

대 상	□정신 □재활 ■정신지체 □노인 □치매 □청소년 □어린이				
장 소	■실내 □실외 □실내외	계 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난이도	□상 □중 ■하

일시	2009.08.18	담당치료사	이 선자
목표	-지시사항 준수하도록 한다 -감각운동훈련		
원예치료사 의도	-소재를 보고 이름을 알아 맞추 도록 한다 -아이비에 철사를 엮 는다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준비물	백장미, 카네이션, 국화, 네프로 네피스, 구피아, 아이비잎, 난 잎,부케 홀더, 리본 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홀더에 물 담 그기 -아이비를 손질해서 놓는 다	아이비를 2cm정도 남기고 줄기 자르게 한 다
전개	55 / 쉬는 시간 15	-홀더에 그린 소재를 먼저 꺾는다(구 피아) -중앙에 장미를 꺾고 사방에 꽃을 꺾 는다 -이이비를 26#철사로 헤어핀 메소드를 한다 - 장미에 동격으로 카네이션을 꺾 는다 -사이에 소국을 넣고 완성을 한다 -마지막 끝처리 손질한 아이비를 꺾 는다 -리본을 매서 완성 한다	-홀더에 물을 흡수시키고 거 꾸로 들어서 고인 물을 뺀다 - 철사 메소드 할때 치료사 의 협조를 집중으로 한다 -동근 형태를 만드는 요령을 지도 한다
정리	30	-주변 정리. -작품 제작 후 발표를 한다. -소재를 노트에 그리고 적어본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 소재의 특징을 관찰 그리 도록 한다
Tip	-철사의 두께를 대상자를 고려해서 치료사는 선택을 해준다		

부 케 ②

(비데마이어형)

symmetrical
balance

대 상	☐ 정신 ☐ 재활 ☒ 정신지체 ☐ 노인 ☐ 치매 ☐ 청소년 ☐ 어린이				
장 소	☒ 실내 ☐ 실외 ☐ 실내외	계 절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난이도	☒ 상 ☐ 중 ☐ 하

일시	2009.12.01	담당치료사	이선자
목표	-소재를 작품에 쓰임을 고려해서 손질 하도록 한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창의성및 기술습득 강화		
원에치료사 의도	-소재를 분류 손질하도록 한다 -비데마이어 사방화 제작을 기억한다 -아이비를 철사로 엮는다		
준비물	유색장미, 유색카네이션, 유색국화, 구피아. 아이비잎, 난잎, 프로랄홀더, 리본등		
활동	시간	치료 과정	치료사의 역할
도입	20	-인사하기. -홀더에 물을 흡수 하도록 한다 -소재를 같은 것 끼리 자라서 분류 정리한다	-치료사는 소재의 종류별 한 개씩 모델을 만들어 준다
전개	55 / 쉬는 시간 15	-홀더를 물에서 건져 오도록 한다 -같은 길이로 자른 소재별 분류를 한다 -철사 엮음을 시연 스스로 아이비에 철사를 엮는다 -비데마이어 사방화제작 기술을 기억발표 하도록 한다 -치료사의 언어적 시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도록 한다 -외부 부터 차례로 소재를 꼽기한다	-아이비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치료사의 긍정적 지지를 한다 -사방화를 기억할수 있도록 언어적 또는 그림을 그려서 기억을 돕고 작품에 응용하도록 한다 -기술적력을 준다 -지시사항 준수.
정리	30	-주변 정리. -작품을 자랑 발표한다 -관리요령을 가르쳐준다.	-치료사는 간간히 제작방법을 질문한다
Tip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지한다		

Abstract

An Analysis on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of Vocational Adjustmen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Lee, Sun Ja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made an effort to find a possibility as a tool for job training and job development education of the mentally retarde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a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improve the job adaptation capacity of the mentally retarded who use job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workings. As a result, it is identified that work efficiency within the protection workings increased outstandingly; benefits were created from the indirect perspective; and amazing performance was obtained even in the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capacity of the disabled. Furthermore, this improvement of social and job adaptation capacities als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reating additional benefits.

Realistically,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ssure their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ortions of the mentally retarded who are one of

the most difficult groups to have jobs to secure their job rehabilitation and similar levels of living to those of the non-disabled. Furthermore, even a few mentally retarded who work at the protection workings after successfully finishing job rehabilitation are exposed to simple and repeated works and inferior mechanical noises and so they are likely to feel much more stress than they are treated in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o get sick due to the second psychological diseases.

We already dealt with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ccording to it are a high priority in their living in harmony with the non-disabled in the preamble of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using floral decorations among the activities suggested as one of the specific methods to achieve this premise can promote the rehabilitation and recovery of both body and mind of the disabled by properly using beautiful plants and their assistant materials and can be a program for developing various areas of jobs and job rehabilitation programs, by which the disabled can live with the non-disabled together, with the same kinds of jobs. It is also thought that this improvement of work performance capacity of the disabled can induce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into the creation of incidental benefits within workings and business starting courses naturally.

Analyses for the effects of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job performance capacity, work performance prior to this program was insufficient to be 28.68%, but the work performance increased up to 77.6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which shows more than average work performance. In the comparison groups that the

program was not actually implemented, this improvement of work performance did not appear. I could find out the fact that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work performance based on this. Moreover, nin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horticulture treatment courses won pay raises or maintained the same degrees in last-half salary evaluation proceeded with based on work capacity evaluation sheets, checkup of work amount and CIS-A tests. Remarkable change was that they could perform their jobs independently of other people through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Not only functional improvements but also effects exerted on sociality, a psychological aspect of the mentally retarded through this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also increased from 46.67% up to 68.3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is program works in human relationship and social adaptation. Anothe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 effects exerted on self-respect increased from the average of ($M=2.43, SD=0.66$)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up to ($M=3.24, SD=0.94$)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 noteworthy point in this study is the fact that the job performance capacity of the mentally retarded could be connected to the effects of creating indirect benefits due to the increase of an output, enjoying a big result in job performance capacity. This means that economic independence, a ultimate goal of the trainees is likely to be possible through this program. As stated in the text, it is expected tha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can create various floral decoration goods that are merchandisable among horticulture treatment activities to be performed indoors, and

the width of their selecting jobs would be much more wide. Furthermore, in order to newly and continuously employ the mentally retarded, and to secure their back-to-work programs, we should improve our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and guide them so that they can make developments as a regular member of our society.

Therefore, I am of the opinion that we should establish special vocational schools and special institutes for vocational education only for the mentally retarded, whether they are established by a city or the nation, at the national level, so that they can rehabilitate themselves by making a method to enjoy their basic rights as humans. It is judged that work capacities and living attitudes of the mentally retarded have an important effect on getting a job, and so, the floral decoration training program through horticulture treatments would be helpful for the enhancement of work capacities, living attitudes and the improvement of work capacities of the mentally retarded. Thus, I believe that we can obtain much more objective specialties by performing clinical studies for various subjects to develop continuous floral decoration programs and to prove their effectiveness.

This study can draw a conclusion that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horticulture treatment program for the mentally retarded, the horticulture treatment program through the floral decoration program can reduce anxieties and increase self-respect, and the effectiveness(Lee Seon Ja, 2007) of job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programs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Also,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ppropriateness. I found even if it's only in a small way that we can expect that the

possibility to develop jobs in the horticulture industry and creation of indirect benefits have more enormous effects than any other vocational training and treatment. It appears that the sites can give us a job rehabilitation effect on the mentally retarded through more systematic institutions in terms of indirect and direct aspects of benefit creation. I think that this is a complete and economic independence, goal of rehabilitation.

